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5월 14일(음력 4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679 호

"미얀마 구호" 불교계 나섰다



5월 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알 묘르윈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지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지관 스님 성금 전달·JTS 긴급구조단 파견
조계종·교계 단체들 성금 모금활동 전개도

지난 5월 2일,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7일 현재 2만 2464명이 사망, 4만1000명이 실종되고 10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긴급구호에 나섰다.

6일 애도문을 발표한 조계종은 7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직접 긴급 성금 3000만원을 알 묘르윈(R. Myo Lwin)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전달하고, 6월30일까지 전국사찰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며 '미얀마 이재민 돕기 연등 밝히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한국JTS는 7일 긴급구호요원 3명을 미얀마로 급파해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일정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도 미얀마 군정(軍政)의 폭정에 관계없이 "미얀마 돕기에 불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6일부터 모금캠페인에 돌입했다.

미얀마 사이클론 희생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먼저 애도를 표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사이클론 참사 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하면서, "많은 한국 스님들이 가서 수행하고 있는 미얀마는 30만명의 스님과 국민의 90%가 불자인 불교국가라서 더욱 정이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위로했다. 이에 묘르윈 대사는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이라와디와 양곤 지방이 오지에 속해 피해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속담처럼 한국 불교계가 따뜻한 정성을 보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8일 전국 본말사에 긴급 공문을 보내 "모금함 설치, 이재민돕기 연등 밝히기, 안내 현수막 게시, 봉축법요식에서의 성금 모금 동참 호소"등의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은 성금모금을 위해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023501-04-127811)를 개설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현지구호활동을 위한 상황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현지에 국제긴급구조단을 파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JTS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 등 3명을 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얀마로 파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시급히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출국에 앞서 박지나 본부장은 "쉽게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곳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택해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각각 국제구호활동과 의료 ·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도 모금운동에 나섰다.

6일부터 불자를 비롯한 대국민 성금 모금에 돌입한 지구촌공생회는 "이미 식량부족국가로 분류된 미얀마는 이번 사이클론과 더불어 식량위기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로터스월드는 6일 논평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의 실정과 관계없이 미얀마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들도 미얀마 군부정권의 잔혹한 폭정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는 6일 호소문을 통해 "미얀마 돕기 성금과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모금하겠다"며 "특히 미얀마 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지난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스님들이 이번에는 피해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외신들은 지난 2일 사이클론 강타 이후 스님들이 사원을 떠나 피해 복구작업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큰 피해를 입은 양곤과 이라와디 델타 지역의 불교 사원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수용소로 내놓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돌보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닥친 엄청난 자연재해에 불교계가 나라를 초월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을 실천하는 모습에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우 · 김강진 기자

금주 20면 발행합니다

T I P

불탑의 나라 미얀마는?

미얀마(옛 버마)는 5500만 여 인구 가운데 약 85%가 불교 신도다. 남성들은 대부분 1~2년 단기 출가할 정도이며, 영구 출가한 승려 수만 해도 40만 명에 달한다. 또 사원 수는 5만 여개, 파고다(불탑)는 400만 개가 넘는 불교국가이다. 하지만 45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폭정으로, 급기야 지난해 스님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이로 인해 사찰에는 출입금지령과 함께 수많은 스님들이 강제 연행되거나 희생되는 법난(法難)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강택선 변호사)

'비인기학과 통폐합' 조치

東大 정체성 뭐야?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5월 7일 열린 102주년 개교기념식 및 UI 선포식에서 '세상을 깨우는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 UI를 선보이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하지만 5월 2일 중앙일간지에 "동국대, 경쟁력 없는 학과 퇴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내년도 정원감축학과로 발표된 철학전공, 수학과, 물리학과, 사회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등 해당 학과의 교수 · 학생들이 반발해 교내는 어수선했다.

학교측의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발표에 '기초학문 말살 정책' '직업전문학교로의 퇴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스템은 입학경쟁률 · 재학률 ·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5년간 교내 평가 점수가 하위 1~8위 이내거나 하향조정지수가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학과를 통폐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계 한 연구자는 "종합대학은 종합병원과 같다. 내원 환자가 적다고 특정 진료과를 없애기 시작하면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 원로학자는 2007년 200억 규모로 시작된 정부의 인문한국 프로젝트(HK사업)를 예로 들며 "지금은 인문학 특성화가 필요한 때"라며 안타까워했다.

독어문화학 전공 임호일 교수는 "타대학 동일학문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동국대내 다른 학과들과 학문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해 서열을 메긴 것은 마치 시 · 소설 · 수필 등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독문, 철학 등은 이미 지난해 정원조정을 받았다. 특정학과 폐과를 위한 수순 아니냐"며 연이은 정원감소 방침에 깊은 우려를 내보였다.

이명천 학사지원본부장은 "전국 대학의 모든 학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는 재학률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학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학과에서 자구책 없이 학교만 나무라는 태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준 철학전공 학생회장은 "재적률 등을 따지기에 앞서 학교가 해당학과 학생들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묻고 싶다"며 항의했다. 또 "6일 학교측과 토론회를 가졌으나 학교 측은 전체적 발전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말해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여전히 교내 구성원들의 불신과 갈등이 있음을 보여줬다.

오 총장 취임 1주년, 개교 102주년을 맞은 동국대에는 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기자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도입 갈등 심화
"경쟁력 강화" vs "직업전문학교로 퇴보"



동국대 교정에 걸린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비판 현수막.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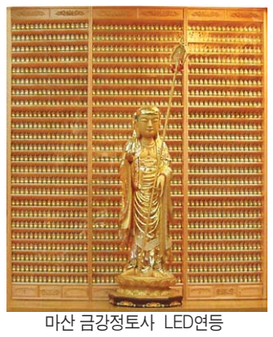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교계 '호스피스 봉사' 관심 절실

교계 지원 시설·자원봉사 교육 지원자 부족
사찰-병원 결연·종단 차원 홍보책 마련 필요

"죽음을 앞두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계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종교의 적극적인 임종 봉사로 장례 도중 가족들이 개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본 불교가 장례의식을 전담하면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임종간호와 장례봉사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 의무이자 포교 방편임에도 불교계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실정.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5월 2일 '불교의 죽음관과 호스피스 교육'을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30개소 중에는 불교계 시설이 단 1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불교 호스피스 교육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에서 5월 7일 '제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개강했지만, 46명의 교육생을 모으기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됐다. 복지재단은 원래 3월 중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하려 했으나 교육생이 모이지 않아 교육을 5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

복지재단이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봉은사 · 불광사 · 조계사 · 화계사 · 한마음선원 등 수도권 내 대형 사찰에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화 안내를 했고 홍보지도 제작 · 배포했다. 이들 사찰에서도 홍보를 적극 도왔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원래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수강료를 8만원까지 끌어내리고 나서야 교육생 성원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 관계자들은 "종단에서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 및 인식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 · 공급의 욕구를 읽어내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호스피스 교육 문제는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의 연구 저변 확대 ▲병원 법당의 활동 영역 제공 ▲봉사자들의 봉사 욕구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종단 차원에서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병원봉사 참여도를 높여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봉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라 다른 봉사와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스피스 봉사에 대해 막연히 겁을 먹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병원봉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대면하면서 '현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1사찰-1병원' 결연과 지방사찰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에는 14개 병원 법당이 마련돼 병원봉사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다소 활동영역이 좁기에 이들에 대한 동기 부여는 종단 차원에서 활발한 홍보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불교자원봉사의 저변을 쌓는데도 10년이 걸렸다. 호스피스봉사 및 교육 역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종단과 사찰,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쌓기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7일 열린 한나라당 불자의원 당선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하는 지관 스님.

"의정활동 모범 보이길"

지관 스님, 한나라당 불자의원 당선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제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만나 불자다운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5월 7일 낮 12시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초청오찬을 열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불자의원으로서 항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불교관련 법령 정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종단 주요 소임스님과 최병국, 주호영, 이계진 의원과 조문환 당선자 등 한나라당 당선자 20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5월 9일에는 통합민주당 소속 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北, 석왕사 복원사업 추진

6.25 한국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된 북한 강원도 설봉산 기슭의 석왕사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월 6일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건설건재대학 연구사들이 석왕사를 복원하기 위해 건물 설계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현지에 나가 당대를 대표할 건물들의 터를 실측하고 시험발굴도 해 윤곽을 확증했다"고 전했다. 김성우 기자

"굶주리는 아이들 없었으면…"

JTS, 어린이날 맞아 빈민국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2008년 JTS 연중기획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계 어린이 빈곤퇴치 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빈곤어린이,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도 및 세계 빈민지역 어린이 돕기를 목적으로 한 행사다.

이날 캠페인은 방송인 김병조 · 아나운서 김미진씨의 사회로 지금까지 JTS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온 노희경 작가 · 성준기 PD를 비롯해 연기자 배종옥 · 김여진 · 한지민 · 한상진 · 장희웅 · 서범식 · 박성웅 · 구본영씨와 아나운서 한석준씨 등 20여명 방송인의 참여로 진행됐다.



5월 5일 명동에서 열린 JTS의 어린이 빈곤퇴치 모금 캠페인.

JTS는 이날 행사를 통해 모연된 기부금을 모두 아시아 국가 어린이들의 기아 · 문맹퇴치와 질병치료를 위해 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토회 길벗모임'이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주민들을 돕기 위해 JTS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JTS 후원=국민은행(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086-01-0339-254, 문의 (02)587-8995.

김강진 기자

조계종 포살·결계법 본격 시행

결계 신고는 19일까지

조계종 산하 전국 사찰과 스님들은 이번 하안거 결제일인 5월 19일(음력 4월 보름)까지 스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고하는 결계(結界)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조계종은 지난 4월 24일 제27차 종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승가의 수행종풍 진작과 공의전통을 선양하자는 취지의 '포살및 결계에 관한 법'에 따라 5월 10일부터 결계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19일까지 소재 지역이나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와 학인들은 결계현황보고서를 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이미 출국한 스님들은 해외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국 각 교구본사는 이번 하안거 기간에 날짜를 정해 포살(布薩: 참회)법회를 시행하고 참석 스님들의 결계록을 작성한 뒤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우 기자

고판화박물관 유물 7점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

치악산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6일, 전적 유물 7건 7점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지정된 유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안심사판 <제진언집> 1책, 유형문화재 제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1책, 유형문화재 제153호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1책, 유형문화재 제154호 안심사판 <옥추보경> 1책, 문화재자료 제146호 만연사판 <중간진언집>(상 · 하 1책), 문화재자료 제151호 <불정심다라니경>(상 · 중 · 하 1책), 문화재자료 제151호 <예념미타도량참> 5권 1책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8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일시 : 불기 2551(2008)년 5월 17일(토)~18일(일)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모시는 글

거룩하신 붓다 · 다르마 · 쌍가, 세 보배님께 예배드리나이다.

(사)한국불교학회는 2008년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5월 17일~18일, 양일간 동국대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결집대회는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를 주제로 하여, 15개국 160여명의 저명한 불교학자들이 참가하여 발표를 합니다. 10개의 분과로 나누어 불교의 종교적 실천성 · 철학적 논리성 · 과학적 합리성을 토론하는 담론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킨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제4차 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학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하는 한편 불교도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한국문화의 진면목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을 모시고 불교학의 대축제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불기2551(2008)년 5월 1일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이사장
이 평 래 합 장

2008년도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

대 회 장 : 이평래
부 대 회 장 : 혜자스님, 김무생, 김선근, 양은용, 이만
조 직 위 원 장 : 혜원스님
기 획 위 원 회 : 이덕진, 유진스님, 장익, 김준호
총 무 위 원 회 : 김용표, 김경집, 윤종갑, 김은희, 윤영해, 석길암
연 구 위 원 회 : 박인성, 김호성, 김응철, 정병삼, 노권용, 김호귀
편 집 위 원 회 : 고영섭, 김재성, 신성현, 김무봉, 정영식, 조승미
학 술 위 원 회 : 신규탁, 김방룡, 김용환, 진월스님, 유혼우, 김종욱, 이태승, 조준호
정보화위원회 : 최유진, 이효걸, 박수호, 김명우, 서재영, 김정희
재 정 위 원 회 : 권탄준, 김성철, 안양규, 김영덕
섭 외 위 원 회 : 최성렬, 우제선, 황순일, 유승무, 윤양호, 김치온
홍 보 위 원 회 : 종호스님, 차차석, 황수경, 화랑스님, 하정남, 권서용
국제교류위원회 : 김순금, 전옥배, 이거룡, 이응주, 조은수, 진우기, 하양자, 이향순, Sem Vermeersch, Santosh K Gupta, 이용현, 성본스님, 원영, 이연숙, 이자랑, 정엄스님, 조윤호, 미노와 켄료, 허일범, 김천학, 가와세 유키오, 정원용, 김화, 박영환, 원필성, 김진무, Zhu Qingzhi, 최종석 ,최종남, 안성두

후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 관음종, 학교법인 동국학원, 대한불교진흥원, 은정불교문화재단, 보덕학회, 벽담장학재단, 운문사승가대학, 동악사승가대학, 봉령사승가대학, 인덕원, 소림사, 불국사, 범주사, 성불사, 도선사, 조계사, 길상사, 화계사, 봉은사, 불광사, 범어사, 통도사, 성심사, 화엄사, 월정사, 장경사, 원각사, 내원정사, 고심정사, 삼정사, 동산반야회

“손 맞잡고 ‘장애의 벽’ 허물자”

해동高 파라미타, 장애우와 함께 통도사 순례 행사



5월 6일 장애우들과 함께 통도사 순례에 나선 해동고 파라미타 학생들.

“처음에는 나와 다른 모습에 겁이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분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이상운 · 18 · 해동고2년).”

“새로 산 운동화와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쓰고 왔어요. 짝꿍도 맘에 들고 통도사도 좋아요(김복돌 · 37 · 천마재활원).”

5월 6일 해동고등학교(교장 강석표) 파라미타 학생들과 천마복지재단의 장애우들이 양산 통도사로 함께 성지순례를 나섰다.

이번 순례에서는 해동고 이사장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과 안정수 교법사가 인솔하는 23명의 해동고 파라미타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30~40대 장애우와 짝을 이뤄 손을 잡고 함께 통도사를 돌아봤다.

이어 일행은 서운암에 올라 여러 들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에 젖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소 ‘풀 한 포기가 곧 부처’라고 말해 온 성파 스님은 “우리 학생들이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좋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 대견하다”며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참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지역화합 행사로 포교 확대를”

인천 불교계 ‘불교지도자대법회·전통문화축제’ 개최로 새도약





5월 3일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인천불교범종단봉축위 봉축대법회(왼쪽)와 6일 라마다호텔에서 봉행된 불교지도자대법회.

인천불교계가 성장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인천 불교계는 대형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다소 미약했던 인천 지역의 불교세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 이하 인천불교련)는 5월 6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교지도자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1부 식전행사, 2부 대법회, 3부 중국 문화사절단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인천불교련 명예회장 혜운, 고문 법륜, 회장 대은, 부회장 경원 스님과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조진형(한나라) · 송영길(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하는데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타행을 통해 정법의 종소리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기에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생활 속에서 참회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말했다.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자리와 함께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천의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불교범종단봉축위원회(위원장 지명, 이하 봉축위)는 5월 3일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 한마당’과 봉축대법회를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경판사경체험, 합장주 만들기, 법고연 등 문화행사와 불교방송 공개방송 등으로 하루 종일 축제를 연 봉축위는 오후 5시 봉축대법회에 이어 제등행렬을 펼쳤다.

봉축대법회에는 봉축위 고문 지하스님(조계종 前중앙종회의장)과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황룡사주지 무원 스님 등 지역 스님과 문병호 이학재 구본철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불자 들이 대거 동참했다. 봉축위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은 화응 스님은 “인천 지역의 봉축 열기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고 관련 행사도 내실과 다양성을 보태고 있어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이 불교세의 강화와 포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 김성우 기자**

부처님과 함께한 ‘어린이날’

선운사 템플스테이 등 전북지역 행사 풍성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3~4일 선운사에서 연 어린이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관계자와 어린이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잔치가 전북 전주 · 정읍 · 고창에서 동시에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부는 5월 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초등학생 및 가족 등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북 어린이 큰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백일장, 사생대회, 민속놀이, 다양한 문화체험,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순으로 펼쳐졌다.

이에 앞서 정읍불교청년회(회장 최민철)는 5월 3일 정읍 충무공원에서 제11회 ‘자비나눔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이웃을 부처님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이 함께하는 세상’ ‘불상 등 불교 상징물 표현하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공)은 5월 3~4일, 선운사 내 템플스테이관에서 고창지역 어린이 43명과 함께 ‘산사에서 보내는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다. 아침산행, 연꽃등 만들기, 단주 꿰기, 성보박물관 견학, 부모님께 편지쓰기, 서원지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안겨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운하반대’ 순례단 환영법회

청주청원조계종주지協 등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회장 설곡) 주관으로 법주사(주지 노현)와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상임대표 강태재)이 청주 무심천 소나무 공원 특설무대에서 종교인 100일 순례단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설곡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교인들이 대운하 반대를 위해 100일간 도보로 순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뜻이다”며 “남은 17일까지 지금처럼 건강하게 완주해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교인 100일 순례단 단원들을 비롯해 BBS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법주사 총무국장 현우 스님과 강태재 운하백지화충북도민행동 상임대표, 홍재형, 노영민, 오제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천왕사 대웅전 낙성법회

제주 한라산 천왕사는 5월 1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관음사 원종 스님과 각 종단 원로스님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 및 봉불점안 법회를 거행했다.

천왕사 대웅전은 회주 월서 스님의 원력으로 2006년 8월 불사를 시작해 1층 수행관 127평, 2층 대웅전 98평으로 지어졌으며 주불은 석가모니불이고 좌우에 관음, 지장 양대 보살을 모셨으며 천 분의 원불을 함께 조성했다. **조동섭 기자**

청주 관음사 이색 그림展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2일까지 관음사 천불보전에서 이색그림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회에는 비천상, 십이지신상, 연꽃 등 전통적인 소재를 주제로 기와에 그린 그림을 50여점을 선보였다. 기와 그림은 단청불화기법으로 그려져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6일 개막식에는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 각의,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회 회장 설곡, 관음사 주지 현진, 공군17비행장 호국 영축사 상국,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과 기와 그림 작가 이희영, 단청장 권현규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군산 흥천사서 경로잔치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회주 지환, 주지 법희)는 5월 3일 흥천사 앞 광장에서 제10회 자비의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관음사 재곤 스님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혜월, 백운사 지향 스님과 강봉균 국회의원, 안근 군산불교신도회장 등 1500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지환 스님은 “<부모은중경>에 설해진 부모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신도들과 함께 정성스러운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주문



수륙고혼천도방생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은 5월 2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륙고혼천도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안양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봉행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은 5월 6일 안양교도소에서 146명의 재소자에게 5계를 수계하고 전체 재소자들에게는 대중공양을 베풀었다.



수원사 아름다운 음악회 열어
수원포교당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5월 12일 수원사 불교문화원 만불보전에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었다.



한암대종사 선양 수행학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3~4일 월정사 대법륜전과 상원사에서 '한암대종사 선양 수행학림'을 개최했다.



울릉 해도사 봉불 및 요사채 낙성식
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지 비룡 스님은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봉불 및 요사채 낙성식과 독도위령재를 봉행한다. (054)791-2471



동산불교대학 불화전시회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서울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제2회 불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조계사 어버이날 경로행사



조계사(주지 원학)는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3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2008 어버이날 경로행사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개최했다. 조계사가 주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복지관, 조계사 불교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풍물패 길놀이 등 식전 행사와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진행됐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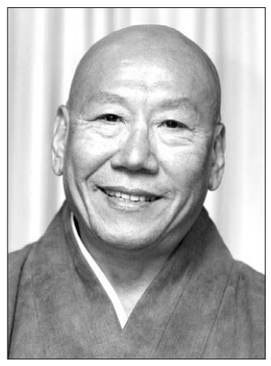
이전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중앙본부 및 부설기관인 '행복한 가정상담소·이혼예방센터'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남도빌딩 206호로 이전했다. (02)738-5586

화엄종장학회 서울 사무소가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로 이전했다. (02)730-0798

"장독대에서 가족 건강 비결 찾아요"

'한 가족 한 장독 갖기 운동' 펼치는 정산스님



"단순한 음식문화 체험 이상으로 신비에 가린 사찰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정서와 자연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삶의 생명력으로 회복시키고자합니다."

사찰음식 연구·보급에 앞장서온 정산 스님(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산촌 대표)이 '한 가족 한 장독 갖기 운동' 체험 행사를 갖는다.

도시 생활자들에게 장독이란 '고향에 대한 향수'이거나 콩쥐팥쥐 동화책에서 본 두꺼비의 보은(報恩)이 전부일 터. 그러나 정산 스님에게 장독은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는 '웰빙'의 문제이다. 스님은 잠시 잊고 지내온 지난 날 어머님의 장독대에서 가족 건강비결을 찾는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인지시키고 자연의 순환 원리와 교감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산촌 매장 앞에서 6월 1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 함께 장독갖기 체험에 나설 계획이다. 상담은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한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한 가정 기준 1년간 50만원의 비용이면 우리 가족의 장독대를 만들 수 있다. 항아리 15kg 1개·항아리 10kg 2개·된장 10kg·고추장 5kg은 1년간 관리 받고, 장아찌 2kg은 2년간 관리 된다. 간장 3kg은 행사시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8월에는 벽제에 위치한 체험 교실(산촌 분점)에서 장독 관리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 현장을 답사한다. 11월에는 고추장·된장·메주를 직접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고구마도 굽고 인절미도 만들어 본다. 내년 1월이면 된장을 담근다. 장이 익는 2월이 되면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에 오를 된장과 간장을 맛 볼 수 있다.

"이번 장독 갖기 운동은 위협받고 있는 한국인의 밥상에 천연의 맛을 선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의 고춧가루, 참쌀, 콩 등으로 만들어진 장담그기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전통음식의 소중함도 배우고 가족의 건강도 책임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02)733-0709

글=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나눔 노래할 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된 '해피체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뭉친 그룹이 있다. 4인조 보컬 그룹 '해피체어(Happy Chair)'다. 이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만났다. 4월 29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 '얼굴'인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박은환(28)·장동혁(30)·나정혁(26)·강대웅(31)씨 등 4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4년여의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거쳐 지난해에 첫 싱글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올 5월 중 '첫 번째 일기장'이라는 곡을 통해 정규 1집으로 본격적인 데뷔를 할 예정이다.

데뷔를 앞둔 시기, 홍보대사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해피체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 제안을 듣자마자, 흔쾌히 받아들였다. 평소 멤버들끼리 장기기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이란다.

"'장기기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생명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이들은 홍보대사 위촉식에 직접 참석,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장기기증신청서부터 작성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고, 공연할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본부에서 주최하는 조혈모세포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해피체어가 처음 마음처럼만 활동한다면 생명나눔 사상을 일파만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피체어는 5월 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연등축제 문화마당 '제8회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김강진 기자

"지혜 보급하는 일에 남은 인생 헌신"

영광도서 40주년 맞은 김윤환 대표



"앞으로도 독자를 위한 양서 보급의 역사를 지켜 나가며 순간적인 이익에 타협하지 않는 차별화를 전략으로 삼을 것입니다. 독자를 위한 양서 보급,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도(正道)이며 굽히지 않을 소신입니다."

독서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책에 대한 경쟁력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때 굳건히 40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양서 보급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성장하는 곳이 있다.

부산 영광도서, 좋은 책을 선별하고 독자를 위해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어려운 환경에서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 지원 사업 등 지역 발전의 주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5월 7일 영광도서 40주년을 맞아 대표 김윤환 사장을 만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9남매가 있었던 가정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 한학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교육은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죠. 자립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책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돼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한학을 배운 덕에 좋은 책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김 사장은 "책을 보는 안목을 아버님께 물려받았다"며 "양서를 발견하고 그 책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떠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기에 앞으로도 '좋은 책을 독자에게'란 이 모토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불경기 속 성공 전략은 '정도(正道)'뿐이라는 것. 좋은 책을 선별해서 제대로 공급한다는 단순한 철학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이끌고 한 평 남짓 노점에서 성공을 일궈낸 원인이라는 것이 김윤환 사장의 설명이다.

40주년을 맞아 120여명의 직원들과 '책 인생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는 다짐을 반복하며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김윤환 사장.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00

덕숭총림 방장 원담 대종사 49재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는 5월 4일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원담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혜정 스님, 전국 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문도대표 설정, 문주대표 월탄,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과 홍문표 국회의원, 최승우 예산 군수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전북경찰청불자회 제2회 무진법회 봉행

전북지방경찰청 경승단(단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5월 3일 전주 갤러리아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회 무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행 스님과 전북 경승실장 원혜, 완산서 경승실장 덕산, 성흥사 송월, 전북불교회관 덕림 스님과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인, 경찰불자 가족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2008 캠퍼스 나눔 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는 5월 6일 서울 사랑의열매회관 대강당에서 '2008 캠퍼스 나눔 도전' 창단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 총 5개교에 5월 축제기간 동안 설치될 온도탑에는 나눔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젊은 의지가 사랑의 온도로 표시된다. (02)6262-3037 가연숙 기자

무각사 부처님오신날 특별사진전 개최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5월 2~19일 무각사 문화관에서 사진작가 김태성씨의 특별기획사진전 '그립습니다. 엄니'를 개최한다. 청학 스님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속살까지 아린 차가운 겨울 뻘밭에서 밤낮없이 일하느라 허리 한 번 펼 날 없지만, 언제나 넉넉한 웃음과 인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엄니와 아부지들의 삶 그것이 곧 부처의 삶"이라며 "전라도의 '생불(生佛)'을 만나는 자리"라고 행사를 소개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4기 최 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5월 22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과정별 교재 및 수련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현재 접수중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2) 582-0737
042) 255-0734~5

세계 불교학자 160명

'불교의 세계화 세계의 불교화' 모색

제4회 불교학결집대회 17~18일 개최…대운하 · 광우병 관련 논문도

국내 최대 불교학술행사인 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이평래, 이하 결집대회)가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를 주제로 5월 17~18일 동국대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결집대회는 국내 및 미국 · 영국 · 독일 · 티베트 · 캄보디아 등 20여개국 160여명 저명 및 신진 불교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점검함으로써 세계 불교학 연구의 트렌드를 살피는 등 다양한 불교학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 높아진 발표논문 수준

이번 결집대회는 이평래 대회장을 중심으로 동국대를 비롯한 10개 대학과 한국불교학회 등 21개 불교관련 학회, 13개 불교관련 연구원, 12개 승가대학의 학자들이 2년여 동안 준비했다. 3회 결집대회보다 발표논문은 30여편 늘어난 160여편, 발표논문 자격도 미리 발표요지를 받아 심사해 총 200여편 중 160여편을 추렸을 정도로 질적 · 양적 향상을 모두 도모했다는 것이 결집대회 조직위원회의 자평이다.

 # 외국 석학 방문 줄이어

20여개국 60여명의 해외 불교학자 중에는 일본 화엄학 연구 권위자인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 여래장 사상의 권위자인 요시무라 히로미 교수, 유식학 분야 권위자인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 가이 뉴랜드 교수, 잠파 체드로엔 등 저명학자들의 참석이 눈에 띈다. 매년 참가하던 국가들에 더해 이번 결집대회에는 캄보디아, 네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불교학자 10여명도 초청됐다. 이평래 대회장은 "보다 많은 불교국가 학자들을 동참시켜 연구성과를 공유해 각국의 불교학 진흥과 불교 대중화의 초석이 되자는 것이 결집대회의 취지"라고 말했다. 내한한 해외 불교학자를 위해 불광사 신도 · 국제포교사회 가정과 화계사 · 봉은사 · 길상사 등 사찰에 각각 '홈스테이' '템플스테이'도 마련됐다. 오지연 간사는 "60명 내한 학자 중 30여명 이상이 불광사 등 신도가정과 화계사 · 봉은사 · 길상사 등에 마련된 홈스테이와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및 주제별 10개분과로

'불교의 세계화 · 세계의 불교화'라는 대주제처럼 이번 결집대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분과를 편성했다. 인도불교,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의 지역별 5개 분과와 선불교, 불교사학 등 총 10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응용불교 분과에서는 불교윤리 · 불교생명 · 불교명상 등 현대 사회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불교학에서 찾는 시도가 펼쳐진다.

#관심 끄는 논문들

고영섭 교수(동국대)의 '한반도 운하안과 불교생태학'이 눈길을 끈다. 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운하사업을 불교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고영섭 교수는 "불교생태학은 인간과 국토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소모적 논란보다 국민 삶의 질적 성숙과 건강한 국토의 보전이라는 실용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5월 17일 오후, 한국불교 분과 발표)

국내 광우병 전문가로 알려진 우희종 교수(서울대)는 '복잡계 이론으로 본 깨달음의 탈신화화'를 통해 "일상적 삶의 경이로운 재발견이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선종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논지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포스트 성철' 시대의 나아갈 길을 '입전수수(入廛垂手: 손을 펴 저잣거리에 드는 일)'로 정리한다. (5월 18일 오전, 요가 및 불교명상 분과 발표 예정)

마츠다 카츠노브 교수(日本 불교대)는 '아프카니스탄 출토 불경사본(Buddhist Manuscripts from Afghanistan)'을 발표해 199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계곡 동부 지역 '자르가란' 석굴사원 폐허지에서 발견된 불경 필사본 파편들을 소개하고, 국제 연구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5월 17일 오전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불교 분과 발표 예정)

이 외에도 ▲제1 인도불교 분과에서는 카와나미 아키라 명예교수(日本 토요대)가 '대승불교에 있어서 지(智)의 체계'를 발표한다. ▲제2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불교 분과에서는 사회운동가인 미나크시 라이씨가 '불교에서 여성의 지위'를 ▲제3 중국불교 분과에서는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日本, 고마자와대)가 '유식학파의 보살계에 대하여'를 ▲제4 한국불교 분과에서는 타무라 코오유우 명예교수(日本, 토요대)가 '성덕태자와 혜자 · 혜총'을 ▲제5 일본불교 분과에서는 이노우에 카츠히트 교수(日本 칸사이대)가 '메이지 이후 일본의 철학과 불교사상'을 ▲제6 선불교 분과에서는 가이 뉴랜드 교수(美國, 센트럴 미시건대)가 '청정과 기쁨: 독신 탄트라 학파에서의 깨달음'을 ▲제7 불교사분과에서는 하정용 선임연구원(한국한의학 연구원)이 '신라 의승(醫僧)고'를 ▲제8 불교예술 및 생명 분과에서는 사재동 명예교수(충남대)가 '백제 금동대향로의 불교문화학적 고찰'을 ▲제9 요가 및 불교명상 분과에서는 조혜숙씨(원광대 박사과정)가 '태교를 위한 요가수행법'을 ▲제10 응용불교 분과에서는 남궁선(용인대 강사)씨가 '공업(共業) 사상의 연원과 전개 등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2008년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분과별 주제

분과	분과명	분과별 주제
제1분과	인도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인도철학
제2분과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불교	티베트불교, 중앙아시아불교
제3분과	중국불교	삼론, 유식, 천태, 화엄, 법화, 정토, 열반, 밀교
제4분과	한국불교	삼국시대불교, 통일신라불교, 고려불교, 조선불교, 현대불교
제5분과	일본불교	아스카나라불교, 헤이안불교, 가마쿠라불교, 무로마치에도불교
제6분과	요가및불교명상	요가와 다양한 불교 명상, 심리치료
제7분과	선불교	중국선불교, 한국선불교, 일본선불교
제8분과	불교사학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일본불교사, 티벳불교사, 동남아불교사
제9분과	불교예술	불교건축,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공예, 불교서예
제10분과	응용불교	불교윤리, 불교생명, 불교명상, 불교상담, 불교교육, 불교사회복지, 불교문화콘텐츠

"유아도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김오순씨, 한국명상치료학회서 밝혀



5월 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명상치료학회에서 발표한 김오순 교수(원광대)와 논평을 맡은 이수경 교수(동국대) (왼쪽부터).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명상활동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김오순 겸임교수(원광대 유아교육학과)는 5월 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명상치료학회에서 '명상활동이 유아의 유치원 적응능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치원생 8명을 대상으로 식물원에서 명상활동을 교육한 사례를 제시했다. ▲걸으면서 몸 풀기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감 해소하기 ▲명상활동을 위한 단전호흡 지도 ▲식물들과의 교감 명상의 과정을 거친 뒤 식물원의 환경을 회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실험과정 설명 후, 김 교수는 "지도한 명상법은 선(禪) 수행시 강조되는 조심(調心) · 조식(調息) · 조신(調身)을 바탕으로 수식관법과 통찰명상이 조화된 방법이다. 유아들을 알아차림의 단계에 까지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김오순 교수는 "실험 결과 유아도 명상을 통해 적응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됐다"면서 유아명상의 보급을 위해 유치원 교사의 명상 이해와 가정에서의 유아명상 지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황옥자 교수(동국대)가 '불교명상과 사무량심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오윤경 연구원(명상심리치료연구소)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명상활동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개최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5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기론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윤호균 교수(가톨릭대 심리학과)가 '온마음 상담과 연기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제 679호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대한전통불교
무형 문화 제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바라,나비무,법고, 고장,천도재,49재,점안식
010-7579-8200(서창)
금륜사 도광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계룡산 손바닥 토종 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 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소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 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 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 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 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氣 치 료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각종 질병
(대체의학 비법전수)
중국교포 출장 방문
010-9137-1667

역학개인지도
한문을 전혀 몰라도 한글로 한달만 배우면 (역학, 사주, 신수, 재수 등)을
통달하는 비법을 1대 1로 전수해 드립니다.
052)264-8183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모든 제 의식 가능한 스님)
제 의식 봉행할 때만 오셔 도 됨
부산 근교 스님 환영
051)502-6569

조계종 사찰에서 행자구합니다
출가 수행의 뜻이 있는 남자
▷자격:17세~45세, 고졸 1인1실 개인지도함
054)452-0845
054)452-6065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고 기도할수있는 장소(한강이남서울부근, 부산부근, 빈가옥, 산 기타 보시나 무임으로 약 3년정도 빌려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선망 조상님,천도재,49재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분들께서도 연락주시면 무임으로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010-4475-3552
02)934-3352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무진장 합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남원 시내)
010-4612-0936

조용한 산사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합천군 대병면
016-9506-5706

서울근교 대작불사중 부전스님(비구), 불연이 깊은 40-50대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010-4540-3344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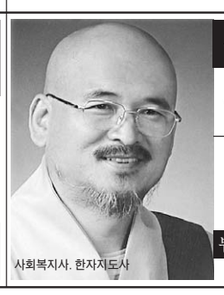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팔공산)
010-3189-8745

부전스님(비구니) 모십니다
(대전근교, 비구니기도도량)
011-435-2572

부전스님이 인연처를 찾습니다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010-2446-2626

역 학 공 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백도현 구성학강의
운명 · 운세 · 방위학 · 개운비법
참재미있고 쉬운 易學! 「천년지혜 밀교비전」
특별한 암기법 / 단기속성, 개인관리학습 / 실전임상
불교종단에 다년간 초청강사경력
011-9735-1742 [종로5가 7번출구 청계천방면]

유럽에서 '卍'은 민간신앙 상징

해외불교칼럼

기원전 8세기경부터 지중해 연안과 남부유럽에서 태양과 역동성의 상징으로도 쓰인 스와스티카(이하 卍으로 표기)는 현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발트연안 등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천둥번개의 신 페르콘을 뜻한다.

바이킹과 같은 해적질이든 고기잡이든 대체로 바다에서 삶을 꾸려가는 북 유럽인들에게 천둥번개, 강풍 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먼 훗날 같은 지역에서 卍은 전기의 뜻으로 바뀌어 발전소, 변전소의 지도표식, 고압전류 경고용으로 쓰인다. 발전기, 엔진 등 전기관련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ABB라는 거대다국적기업의 지분회사가 된 스웨덴의 ASEA는 1883년 창업 이래 자사 로고이던 卍을 1933년부터 사용 중단한다. 나치가 당장으로 쓴 탓이다. S자가 가로지른 곡선형 卍은 게르만 대이동 등 민족, 부족의 집단이주도 뜻한다.

켈트족은 브리가 또는 브리기트 여신을 상징하는 브리기트 십자문양을 쓰는데, 오늘날 아일랜드의 국화인 샴록과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떠올린다. 이 문양은 큰 바위에 각인되어 우리의 옛 성황당처럼 켈트족의 간이 기도처가 되며 호신부적으로 무기에도 새겨진다. 이와 닮은 문양은 영국 등 도서지역에서도 필폿, 즉 네 개의 다리를 묘사하는 卍으로 부족, 씨족의 문장(紋章)이나 방패 등에 나타난다.

이는 기독교가 어느덧 로마제국의 통치기반이 된 5~10세기의 일이다. 기독교가 생겨나자마자 유럽인의 종교가 된 건 아니다.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 부르던 여러 무리가 모여 살던 서부유럽이 기독교화된 건 9세기경이며 스칸디나비아반도 등 북부와 동부유럽은 2세기 쯤 더 걸린다. 게다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친 십자군전쟁이란 집단극악범죄가 자행될 때까지도 러시아정교도들은 세례 받은 곰(Baptized Bear)이라 따돌림을 당한다. 이후 유럽전역에서 선교니 교화니 둘러대는 기독교도와 토착신앙의 '이교도' 간에 내리 벌어진 유혈추태까지 열거하는 건 시간낭비다.


조계사 범종루 지붕 합각에 새겨진 卍자.

그래저래 유럽에선 十이 종교적 표식이 되고, 卍은 종교보다는 힘, 에너지, 행운을 의미하는 민간신앙의 상징으로 비켜선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즉 아브라함에 기원을 둔 종교도 卍을 더러 쓴다. 로마제국의 유태점령기에 세워진 에인 게디의 유태교 회당, 이란의 이스파한에 있는 이슬람의 금요일 모스크 및 레바논의 타이날 모스크에서도 장식용으로 쓴다. 또 시몽드기양 가톨릭수도원장의 묘비에 새겨진 목에 두르는 띠, 윈체스터 성당의 윌리엄 에딩톤 주교의 초상화의 목 띠에도 卍이 보인다.

卍은 파리 노트르담성당의 바닥장식,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소피아성당의 모자이크, 이탈리아 밀라노의 암브로세성당 등에도 쓰며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의 건축물에도 활용된다. 한때 기독교에선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를 상징하여 네 꼭지가 짧은 卍을 쓰며 히틀러가 어릴 때 잠깐 다닌 오스트리아의 람바흐성당의 베네딕트합창학교에도 卍이 새겨져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18년 내전 때 노동소작계급인 적군(赤軍)을 격멸하는 중산지주계급을 대변한 백군(白軍)의 상징, 여성국방의용군 마크, 공군휘장으로 1950년까지 사용한다. 1925년 미국의 코카콜라회사는 열쇠고리 비슷한 행운의 卍을 판촉용으로 쓰고 캐나다의 여자아이스하키 팀도 로고로 쓴다. 영국은 전시검약보국대의 마크, 보이스카우트의 행운의 배지, 또 덴마크의 다국적 양조산업체인 칼스버그에서도 자사 로고로 卍을 쓰다 나치가 '하켄크로이츠'를 채택하자 이내 사용을 중단한다. 이는 독일어로 갈고리(Haken)와 십자가(Kreuz)가 이어진 말로 고대게르마니아 무리에서 근대 게르만공국들을 거쳐 나치의 제3제국에 이른다. 처음엔 卍과 卐을 혼용하던 나치는 1920년 아리안족의 진로와 창조의 상징으로 45도 기울어진 卐를 최종확정한다. 이후 卐은 十과 이중문양을 이루며 철십자훈장, 군도, 군용반지, 전사자묘비 등에 두루 쓰인다.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전당대회에서 천년제국의 저주로 나부끼던 3만2천개의 갈고리십자가 깃발의 광풍은 인류사에 몹쓸 상처를 남기고 고작 열두어 해만에 사그라진다. 그러나 '부디 잘 되어지시라'의 뜻으로 3천여 년을 이어온 스와스티카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고이 남아있다. 성휴 스님

참조:Design & Culture, Modern Use of Swastika 등

"불교란 스스로 깨우치는 것"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스티븐 시걸 ❸



티베트불교의 라마가 되고자 수행한 적이 있다는 스티븐 시걸 도반은 1997년 은사인 페노르 린포체로부터 툴쿠, 즉 '환생한 라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매스컴에 알린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선 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치거나 노골적으로 비아냥댄다. 그러자 당사자인 그보다 오히려 나로파대학 측이 발끈하고 나선다.

1974년 콜로라도 주에 설립되어 NCACS로부터 불교대학으로 공식 인가를 받은 나로파 대학의 명의로 '그가 장기적인 수행과 덕행의 결실로 툴쿠가 되었다'고 재확인하기에 이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듯 남의 일에 시시비비가 다반사라서 "너나 잘하세요"란 유행어도 생기나보다. 그 일이 있은 후 꽤 긴 세월 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던 그는 2004년 <영화의 모든 것>이란 전문지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중복이 되겠으나 문맥을 자르지 않고자 원문에 가깝게 인용하기로 한다. 기자가 먼저 껄끄러운 질문부터 꺼낸다. "사람들은 대개 저명인사를 평가할 때 스크린에서 본 대로, 또는 어디서 얻어듣고 읽은 대로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시걸님께선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하하, 대처하긴요? 뭐, 그냥 잘들 하시라 그러고 저는 제가 하던 일만 그대로 해나가는 거죠. 게다가 비속하고 악의적인 취향에 편승하는 저질 언론 또한 적잖으니 그런 것에 일일이 촉각을 곤두세울 까닭이 없죠."

기자가 서서히 말꼬리를 돌린다. "언제부터 불교에 관해 배우기로 작심했나요?"

그의 답변이다. "불교란 작심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 다만 제가 청소년기를 동양에서 지내다보니 어느덧 불교철학과 붓다의 가르침이 저라는 존재와 자연스레 하나가 됐어요."

기자가 이어 묻는다. "그럼 불교의 어떤 핵심적 가르침에 특히 이끌리게 되셨나요?"

"네, 제 경우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행무상, 즉 모든 것은 늘 그대로가 아니라 늘 바뀐다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선, 이는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염불(念佛), 즉 말 그대로 붓다 세존을 항상 제 마음에 떠올리는 겁니다. 이 모두는 제가 매일 사고를 하고 생활을 해감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기자의 물음이 이어진다. "스티븐 시걸님께선 동서양에 걸쳐 남달리 깊숙한 연고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양 특유의 과잉성과 동양 특유의 단순성 사이에서 고민한 적은 없나요?"

그의 거침없는 답변이다. "물론 많았죠. 그러나 전 제가 하는 일에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날마다 몇 시간씩 고요하게 수행하는 참선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참선을 하시다니 참 놀랍군요. 저도 참선이 특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감각을 지켜감에 있어 대단히 효과적이란 얘긴 자주 들었죠. 그런데 혹시 가장 닮고 싶은 스승이 있으신가요?"

"많아요. 정신적 지도자인 모든 구루,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스치는 스승님들 모두가 제가 닮고 싶은 분들이죠."

"그럼 지금껏 자신이 해낸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제가 불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란 서로 돕고 베풀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여로입니다. 힘든 이들을 돕고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불교는 그러한 행복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종교이자 생활철학입니다." 〈계속〉 성휴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Never again injure people!

That is against the a law of gods.

사람을 더 해치지 말라!

이는 신들의 뜻을 거스름이라.

Once a huge snake had killed several villagers. They tried but failed to capture him, and desperately invited a holy hermit. At the snake's den, the hermit scolded him. "Never again injure people! That is against the a law of gods." The snake promised not to harm anyone. One day the villagers found and beat the snake with sticks and stones. He crawled away to hermit's hut crying. "Look at me! Following your advice, I am nearly dead. Is this the law of gods?" The hermit answered." "I said you were not to bite people anymore, but never said you couldn't hiss." A Korean monk chuckled at the story, "Ha, 100% sure! Generously never means giving up all strategy for survival and self-defence."

어느 마을에 엄청난 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데도 잡을 수가 없자 거룩한 은자를 애써 모셔왔다. 그는 뱀 굴을 찾아가 꾸짖었다. "사람을 더 해치지 말라. 이는 신들의 뜻을 거스름이라." 뱀은 그러마고 약속했다. 어느 날 그 뱀이 나타나자 동네사람들은 막대기와 돌로 마구 두들겨 팼다. 은자의 토굴까지 기어온 뱀이 막 울었다. "제 꼴좀 보세요! 은자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저는 다 죽게 됐어요. 이게 신들의 뜻인가요?" 은자가 대답했다. "난 네게 사람을 물지 말라 했지, 쉭쉭 겁주는 소리마저 내지 말라 하진 않았느니라." 이 얘기에 어느 한국스님이 껄껄댔다. "백번 맞는 말씀! 자기방어와 생존전략마저 몽땅 포기하는 건 멍청한 관용이여."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美 '황옌스' 복전함 털이범 검거

범행 목격한 관광객 신고로

4월 27일 미국 뉴욕 주 켄트의 황옌스(莊嚴寺)에서 복전함을 털던 인근주민 세 명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말 관광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십대 후반부터 이십대 초반의 일당 중 약물중독 상태의 남자는 현장에서 잡히고 달아난 여자 두 명은 수 시간 후 체포됐다. 절도, 무단침입, 약물복용, 장물취득, 질서문란 등의 혐의로 6월 5일 치안재판에 회부될 이들이 훔친 금액은 달러 미만으로 추정, 경찰이 사실 확인 중이다. 이곳에서는 2001년 말과 2002년 초에도 복전함이 털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타코닉주립공원도로 인근의 언덕에 중국 당조(唐朝)의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이 사찰에는 서구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34피트의 대리석불상과 만불상이 모셔져 있다.

인근 주민들의 불교학습, 명상 및 기도처로 널리 애용되는 황옌스는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몽골어, 티베트어, 일본어로 된 불서 7만권을 소장한 도서관까지 갖춘 대가람이다. 출처:JN

中, 천수관음보살 석상 개보수

중국 중경시정부는 4월 25일 800년 된 천수관음보살 석상을 전면 개보수할 것이라 밝혔다. 다주 암각조형박물관과 중국문화유산학회의 합의에 따른 이 프로젝트는 미화 147만 달러가 소요되며 2010년 말 종료된다.

남송(南宋) 때인 1127부터 1279년에 걸쳐 다주군의 바오딩산의 정면 15m에서 30m 사이에 조성된 천수관음상은 실제로는 1007개의 팔을 지녔고 손바닥마다 눈(眼)이 새겨져 있다. 이 지역에는 당조 초기인 618~907년 사이에 조성된 석굴과 석불 등 5만 여개가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출처:新華社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❶❺❸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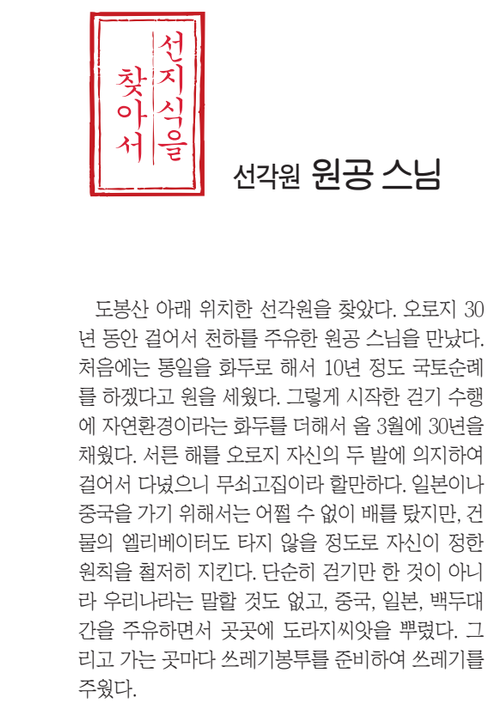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道”

선지식을 찾아서

선각원 원공 스님



30년째 우리 국토 곳곳 돌면서 걷기 수행

‘저소유’의 삶 몸소 실천하며 말없는 포교

도봉산 아래 위치한 선각원을 찾았다. 오로지 30년 동안 걸어서 천하를 주유한 원공 스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통일을 화두로 해서 10년 정도 국토순례를 하겠다고 원을 세웠다. 그렇게 시작한 걷기 수행에 자연환경이라는 화두를 더해서 올 3월에 30년을 채웠다. 서른 해를 오로지 자신의 두 발에 의지하여 걸어서 다녔으니 무쇠고집이라 할만하다. 일본이나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탔지만,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단순히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백두대간을 주유하면서 곳곳에 도라지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쓰레기봉투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주웠다.

스님은 길을 가다가 절을 만나면 절에서 교회를 만나면 교회에서 하룻밤을 머문다. 마땅하게 머물 곳을 만나지 못하면 침낭을 꺼내어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노숙을 하는 것이다. 스님은 인가가 없는 산길을 걸을 때면 생라면과 생쌀을 먹으면서 허기를 해결하였다. 원공 스님의 삶은 정해진 틀이 없는 무정형의 삶이다.

스님은 작년에 서울에서 원통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던 중 국도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 다리 아래 개울에 떨어지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인대가 파손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타야만 하는데도 스님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100리길을 걸어서 갔다.

“한국에서 차도를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위험해요. 걷기를 마치고 숙소에 들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 때가 많았어요.”

원공스님은 옥수수 100톤을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중국 땅을 걸었다.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인도가 있어 걷기에 좋았고 일본 역시 사람을 배려한 도로설계여서 걷기에 좋았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차량에 대한 배려는 넉넉해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기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연이 경제논리, 개발논리에 밀려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공 스님은 반기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걷기 수행을 하였다. 원공 스님은 쓰레기 줍기로도 유명하다.

“쓰레기들이 여권도 비자도 없이 마구 국경을 넘어다닙니다. 일본에서는 막걸리병을 비롯하여 한글이 쓰인 쓰레기들을 보았고 포항해안에서는 일본 쓰레기들을 보았어요. 또 제주도에서는 중국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떼밀려온 걸 확인했지요. 공해에 폐기물 쓰레기들을 마구 버리니 바다의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자연에게 미안해서 주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쓰레기 주울 때 더럽지 않느냐고 했더니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행여 더럽혀지지 않을까를 경계해야지.”라고 한다. 원공 스님은 이번 만행 때는 태안반도에서 15박 16일 동안 기름제거 작업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기름제거 작업하는 것을 보고 태안반도는 살아나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스님의 철학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주창하지도 않는다. 원공 스님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 본 사람들 역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 스님은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말없이 포교를 하는 것이다.

전국 산천에 널린 것이 쓰레기인데 스님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내가 주운 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줍는 일 밖에 없으니 그 일이라도 해야지.”라는 답을 들었다.

지금 스님이 거처하는 한 칸의 방은 누런 초배지로 도배되어 있으며, 전기 스위치는 아예 초배지로 발라버렸다. 에너지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전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공 스님이 지금 입고 있는 개량한복은 무문관에서부터 입고 있던 옷이라고 하니 어림잡아 30년은 족히 된다. 그리고 그 한 벌의 옷은 스님이 가진 의복의 전부이다. 누군가가 만행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약간의 보시금이라도 주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자선단체에 보내거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에게 공양을 베푼다. 스님이야말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무소유는 없다. 저소유라고 해야지.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라고 한마디 툭 던지신다.

2002년 원공 스님은 열한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스무 곳을 123일 동안 걸어 다녔다.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일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도보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속내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또 하나의 커다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발걸음이기도 했다. 일본 땅을 걸어 다니면서도 쓰레기 줍고 도라지씨앗을 뿌렸다.

원공 스님은 “대운하건설은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원공 스님은 한강과 낙동강 그 줄기를 수없이 걸어보았으며, 2003년 약 4개월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만경강 동진강 등의 강줄기를 따라 걸었다. 온몸으로 강을 건너기도 했다.

“한강에서 낙동강 그 강줄기는 한반도의 등줄기에요.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2는 한강과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바지선이 뜨기 위해서는 강폭이 넓어야 할뿐더러 강이 깊어야 하기에 바닥을 6~10미터는 파야 하는데, 강바닥에 어디 모래만 있는가, 암벽도 있지. 그럴 때는 화약으로 폭파시켜야 하는데 그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바지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곳곳에 보를 만들고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겠어요?”

자연이란 억겁의 세월동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물길을 내고 해서 스스로 가꾸어 온 것인데 경제논리로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원공스님은 2006년 만행 때 한계령에서 큰 홍수를 만났다. 그때 인간이 뚫어 놓은 큰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옛길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함부로 물길을 만든다는 것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았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가 약산유엄선사를 찾아가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유엄선사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속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도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도라는 말이다. 원공 스님 또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논리에 맞는 것이며, 더 이상의 난개발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연과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이지 결코 둘이 아님을 온 몸으로 체득한 원공 스님의 말씀이 기에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경책으로 들린다. 원공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원공 스님은

1979년 도봉산의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서 6년간의 수행을 성만하고 나서 곧바로 두타행에 나섰다. 1980년부터 83년까지 1000일간 전국을 걸었다. 그 후에도 통일기원 180일 국토순례, 이산가족 고향자유왕래 염원 220일 순례, 2002년 123일간 환경과 평화를 위한 한일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 2003년 ‘피스 코리아’를 기원하며 한국 해안을 100일 동안 걸었다. 그 후에도 니가타현 지진 피해주민 돕기 운동으로 후쿠오카에서 도쿄까지 400㎞를 걸었다. 2007년 3월 16일 길을 떠나 일 년 동안의 국토 순례를 끝내고 2008년 3월 16일 서울로 돌아옴으로써 30년 동안의 걷기 수행을 마무리했다. 30년 동안 한반도를 29바퀴 돌았으며, 면소재지까지 파악하고 있어 ‘움직이는 지도(地圖)’라는 별칭이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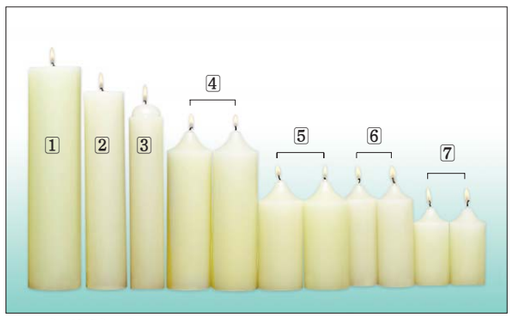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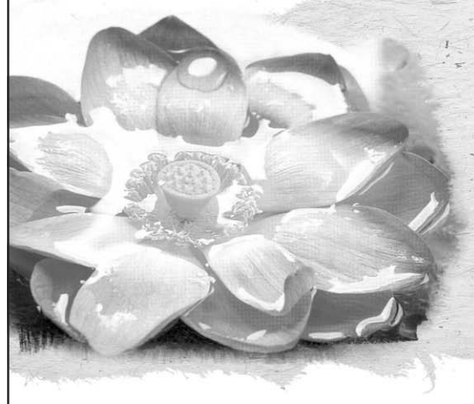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 중앙종회의장 운제

종회의원 혜정 혜담 혜민 법공 연하 지운 혜묵 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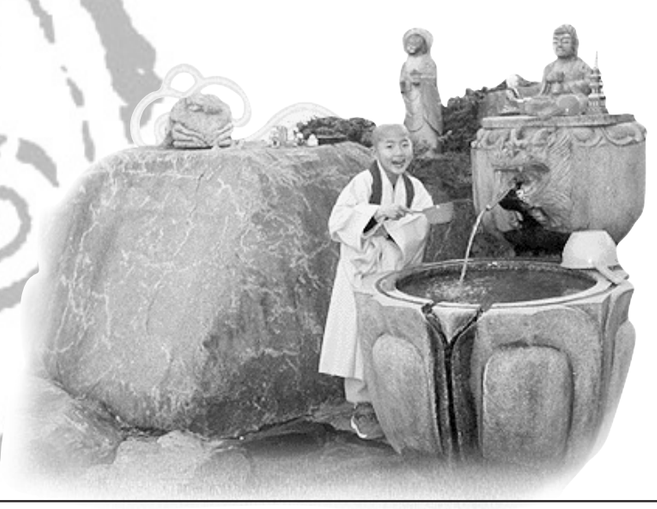
■ 원로원장 혜동

감찰원장 (법우회장) 보성
포교원장 마하
교육원장 경보
비구니회장 동성

■ 총무원장(종정대행) 송정

사회부장 영운
문화부장 영민
교육부장 법정

호법국장 일해
규정국장 혜권
문화국장 진관
사회국장 일송
조사국장 영인



사 단 법 인 한국불교미륵종
사회복지법인 미 륵 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미륵종 법인사무국 **대표전화 (055)345-4741**
홈페이지 www.mireuk.org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친목단체 법우회

미 륵 산 악 회

◆ **회 장** : 보 성
◆ **총 무** : 혜 연

산악회원일동

미륵산악회 TEL 055)636-2414

비 구 니 회

◆ **회 장** : 동 성
◆ **총 무** : 혜 연

비구니회원 일동

비구니회 TEL 051)531-0478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⑦

부처님도 '조화' 방편 의지해 깨달음성취

法華經云 此大衆諸菩薩等 已於無量千萬億劫 爲佛道故 勤行精進 善入住出無量百千萬億三昧 得大神通 久修梵行 善能次第習諸善法

여기에선 법화경에서 인용하여 몸과 호흡과 마음의 조화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법(法)은 오묘한 법이며 화(華)는 연화인데, 묘법과 연화의 비유로 경전의 명칭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하였다.

이 경전은 세존께서 최후에 설하신 극치의 담론이며 오시교(五時敎) 가운데서도 최상의 위치이다. 이 경전에서는 제법실상의 오묘한 이치를 설명하였고 제법불이법문을 현양하였다.

수행하는 방편을 요약하면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화하여 선정에 훌륭히 들고, 훌륭히 안주하고, 훌륭히 나오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이를 의지하여 도를 닦았으며 미래에 출현할 모든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이미 이와 같이 수행했고 지금도 이와 같이 수행하고 미래에도 이와 같이 수행하여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수행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에 해당된다.

'보살'은 보리살타(菩利薩陀)의 준말로서 번역하면 각유정(覺有情)이다. 이는 일체 유정을 훌륭하게 제도하여 깨우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살타'는 용맹하다는 의미인데, 수행인이 용맹하게 정진하여 위없는 보리를 구하기 때문에 보리살타라고 부른다.

또 보살을 개사(開士), 고사(高士), 대사(大士)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총론적으로 말하면 위없는 불과를 구하는 자를 보살대승대중이라고 부른다.

'등(等)'이라는 한 글자는 소승에서 마음을 돌이켜 대승으로 향하는 성문 연각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다. 보살은 수행하는 인인(因人)이며 모든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과인(果人)이다.

모든 부처님은 수행인지에 있을 때 훌륭하게 선정에 들고 안주하고 나오는 것을 의지하여 지관수행을 하여 최초 발심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천 만 억겁동안 위없는 보리의 오묘한 도를 구하였다.

'겁(劫)'은 겁파(劫波)의 약칭인데, 이는 가장 장구한 시간을 의미한다. 가장 짧은 시간은 찰라라고 하는데, 겁과 찰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연월일시로는 계산하지 못하는 장구한 시간을 말한다.

보살들은 단지 일 겁, 이 겁 동안만 불도를 부지런히 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량 천만 억겁동안 불도를 추구하며 훌륭하게 선정에 들고 안주하고 나오면서 지관을 간단없이 용맹정진하며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따라서 깨닫게 되면 훌륭하게 선정에 들고 머물고 나오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로 커다란 신통을 얻어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게 된다.

신통 묘용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어 조작이 필요치 않는데, 무엇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깨달음의 성취를 기다리겠는가.

말법시대 중생의 번뇌 더욱 거칠고 무거워져
욕·진·염·혜·일심 등 다섯방편 수행해야

그러나 중생들은 오랜 세월동안 무명혹(無明惑), 진사혹(塵沙惑) 등 모든 번뇌에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공덕 법재(法財)인 신통 묘용을 잃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를 잃고 있으니 매우 연민스러운 일이다.

지금 요행히 지관법을 만났으니 이를 의지해서 훌륭하게 선정에 들고 안주하고 나오면서 수행하여 미혹한 습기를 한 분야라도 제거한다면 공덕과 묘용의 한 분야가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존이 보리수하에서 도를 성취한 뒤에 즉시 세 번 기이하다고 탄식하였다. 이는 화엄경 여래출현품에서 "일체 중생이 여래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불법을 배우는 자들은 불법 가운데서 약간의 문자만 익힐 뿐이다. 지관을 실천수행하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면 그림 속의 떡으로 주린 배를 채우려 하고, 말로만 음식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는 것과 다름이 없어 자신에겐 반 푼어치도 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

요즘 말법시대를 맞이하여 중생의 번뇌는 더욱 거칠어지고 무거워졌다.

가령 지관 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을 하여 약간의 이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마치 전광석화처럼 한번 통과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말법시대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조용히 앉아서 아미타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상태인데, 한 구절 아미타불을 지극 일심으로 지니고 수행하여 염불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면 지관수행 중에서도 오묘한 가운데 오묘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方便行第五 夫修止觀 須具方便法門 有其五法

이 과목에선 수행방편을 밝혔다. 방(方)은 법이며, 편(便)은 그 상황에 알맞음이다. 일반적으로 대소승 일체법문에서 개괄적으로 방편을 말하는데, 방편이라는 것은 훌륭한 솜씨로 중생의 근기에 합하여 알맞은 방법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서의 방편은 다섯 가지 법을 정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말해본다면 앞에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어 도를 판단하는 보조수행의 인연을 구비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밖으로 오욕경계를 물리쳐 밖으로 오진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으며, 그리고 다섯 가지 번뇌를 버리게 하여 내적으로 마음에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였으며, 또 다섯 가지 일을 훌륭하게 조화하여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데 적당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거듭 다섯 가지 법을 정진 수행한다면 일체 수행하는 문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체 참선 관법과 염불삼매까지도 목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 가지 방편은 욕(欲), 진(進), 염(念), 혜(慧), 일심(一心)이다. 일체 모든 수행은 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춤으로서 지관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만 하며, 그 가운데 하나의 방편이라도 결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一者欲 欲離世間一切妄想顚倒 欲得一切諸禪智慧法門故 亦名爲志 亦名爲願 亦名爲好亦名爲樂 是人志願好樂一切諸深法門故 故名爲欲 如佛言曰 一切善法 欲爲其本

다섯 가지 방편 중 첫 번째는 욕(欲)이다. 욕은 낙욕(樂欲)인데 바라고 구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모든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출세간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라는 마음은 일체 세간의 망상으로 전도된 생사윤회를 떠날 수 있고, 일체 모든 선정삼매와 신통지혜법문을 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일체 악업의 근본일 수도 있지만 일체 선업의 근본일 수도 있다. 선과 악, 망상을 떠나고 선정을 얻는 이 모든 것이 욕이라는 글자가 으뜸이 된다.

또 욕은 지관공부에 입지하기 때문에 지(志)라고도 하며, 수행을 발원하기 때문에 원(願)이라고도 하며, 수행을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호요(好樂)라고도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입지를 세워 일체 모든 심오한 선정법문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일체 모든 심오한 지혜법문을 즐기기를 발원하는 갖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선 공덕법은 욕구가 그 근본이다"라고 하셨는데, 욕구는 즐기고 바라고 환희심을 낸다는 의미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욕구라는 글자는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 첫째가는 방편이며 간절한 요점이라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불상응행온(不相應行蘊)

'불상응행온(不相應行蘊)'은 앞에서 열거했던 상응행온(相應行蘊)에 대비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상응행온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적인 인식활동인 심소유법이 선험적 인식활동인 심왕법(心王法)과 서로 함께 호응하고, 그 심왕법에 소속되어 심왕의 인식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인식활동을 완성시키는 심리적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상응행온은 단지 색법(色法)과 심법(心法)과 심소유법(心所有法)에 소속되어있어 '일어나는 법[生法]'이나 '머무르는 법[住法]' 등을 성취할 뿐, 색법 그 자체를 떠난 상태에서 따로 실재하는 일어나는 법이나 머무는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生), 즉 일어나는 법은 색법 등이 인연에 따라서 취합되기 때문에 그 일어나

색심 등과 상응않는 상태서 천류
실체도 없고 따로의 작용도 없어

는 상태를 두고 생(生)이라고 하는 것이지, 색법 자체 밖에 따로의 '생'이라는 실재법에 있어 색법 등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住)는 일정기간 머무는 상태로 일어났던 색법이 일정기간 자체의 모습이 상속하면서 변괴되지 않는 상태를 '주'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따로의 '주'라는 법의 실재가 있어서 색법이 일정기간 변괴하지 않고 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이(變移)하는 '이(異)'도 모든 제법이 그 자체가 전변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며, 소멸하는 '멸(滅)'도 모든 제법의 활동세력이 다하면 자연히 괴멸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지 따로의 '멸'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제법을 괴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상응행온은 색법이나 심법처럼 실체가 없고, 그 자체로서 따로의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색법 등과 하나로 상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불상응행온이라고 한 생·주·이·멸의 법이 그렇다면 득(得)·비득(非得)등 나머지 모든 불상온행온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상온행온을 다시 요약하면 '행'은 제법이 천류하는 행상(行相)을 의미하는데, 이는 따로의 실체도 작용도 없기 때문에 색심제법과 하나로 상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류하는 행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색심분위차별법(色心分位差別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리=張如舟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산 영국사
주지 청원
사부대중일동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1379
TEL 043)743-8843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
복천사
회주 혜문
주지 경호
신도회장 공묘정행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3가 산 6번지
전화 051)417-5551
www.bokc.co.kr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佛之知見 示悟衆生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부의장 용월산
박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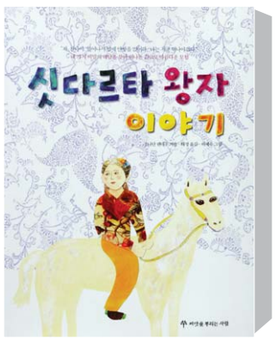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043)423-7100 / FAX043)420-7399 www.chentae.org



부처님의 생애가 신기한 동화로



싯다르타 왕자 이야기
조나단 랜다우 지음 • 태정 옮김 • 이혜수 그림
씨앗을 뿌리는 사람| 9500원

어린이들은 '모험담'을 즐긴다. 모험은 어린이들이 꿈꾸는 세계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들이 모험담처럼 읽을 만한 불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불서 출판의 아쉬움이자 숙제였다.

도서출판 씨앗을뿌리는사람들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펴낸 <싯다르타왕자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읽을 만한 불서다. 이 책은 만화형식이 아니라도 재미있고 신기한 동화책이라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생애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은 거의 전형적인 '모험담'의 구조를 따른다. 옛날이야기나 민담을 읽을 때 손뼉을 치며 응원했던 '영웅'의 모습을 싯다르타 왕자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매력적인 왕자가 수행을 통해 부처로 각성하는 모습은 어른들이 읽어도 좋을만하다. 그러면서도 싯다르타 왕자가 천하의 '영웅'자리 보다 '부처님'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된 과정, 부처님이 된 후에 전법을 하는 모습 등도 자세히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림이다. 화려한 색채 감각과 차분함을 함께 지닌 일러스트로 '모험담'의 환상적 분위기를 재현해내고 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비단 등을 패치워크, 동양적 분위기를 한껏 살려놓기도 했다.

싯다르타 왕자와 함께 멋진 모험의 세계를 돌아나와 부처님의 생각을 깨달아가는 여행, 떠나보자.

김강진 기자

건강식단의 해답이 여기에



밥맛이 극락이구나
함영 지음| 샨티 펴냄|1만 2000원

건강 식단의 해답에 관한 서른 명의 스님과 서른 가지 밥상에 관한 이야기.

산사의 소담한 방에서 뒹굴기 좋아하던 작가가 3년 남짓 불교 매체에 기고해 오던 스님들의 소박한 음식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불가(佛家)의 식생활은 굳이 비법이랄 것도 없는 단순한 조리법이다. 그러한 별스러운 것 없는 비법 아닌 비법을 단순 명쾌하게 공개한다.

밥상에 어우러진 온갖 생명과 희생의 인연. 그것을 다루고 먹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보태진 밥상 위의 음식들은 '인연의 덩어리'다. 부처의 깨달음이 '연기(緣起)'라고 한다면 밥상에는 그러한 깨달음의 이치가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 수행자들에게 음식은 수행을 위해 몸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수행의 방편이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는다'는 오관게(五觀偈)의 의미처럼, 한 방울의 물과 한 톨의 밥알에 담긴 인연 공덕은 깊이 헤아려져야 한다.

"발우공양용 수세미는 신김치가 제격"이라는 법선 스님의 열일곱 번째 밥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본다.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불가의 식사법인 발우공양에서 김치의 소임은 그야말로 살신성인이다. "발우를 씻을 때 필요한 김치는 한 조각이면 충분하지만, 그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김치를 일부러 많이 남긴다"는 스님의 김치 사랑은 안거 중에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때에도 계속된다.

잣죽 한 그릇과 물김치 한사발의 힘으로 졸음과 싸울 때에는 김치가 '뽀빠이의 시금치'와 다름없는 음식이 된다. 자연과 심신이 일여(一如)임을 깨우치는 때이다.

바르게 알고 감사히 먹는 마음 자세 속에는 극락이 따로 없는 법락(法樂)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자는 서른 분 스님의 삶에서 보여지는 잔잔한 에피소드를 통해 보약처럼 든든한 만물의 이치를 전수받는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7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8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9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10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톰텐 초드론	미디어 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따마 붓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 ₩22,000원]

'선의 본질' 한눈에 보이네



禪과 수행
김호귀 지음
석란 펴냄|1만원

불교 안의 숨은 선(禪)을 빠짐없이 찾았다.

인도 고대 요가로부터 찾을 수 있는 선의 원류를 불교 수행법으로 발전시킨 붓다와, 중국불교로 다양화 된 선종(禪宗) 수행법으로서 도래한 정도와 화엄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아우른다. 평소 불교문화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교학과는 다른 측면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선법의 특징과 수행을 피력한다. 선에 대한 기초 이해를 목적으로 한 '선의 본질'과, 묵조선, 간화선, 위빠사나 선수행의 의의와 행위 방법을 언급한 '선의 본질' 등 총 2장으로 구성되었다.

가연숙 기자

밥상 앞에 앉는것도 수행이다



식탁위의 명상
대안 스님 지음| 오래된 미래 펴냄
9000원

매일 눈 뜨고 일어나 정신없이 움직이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저자는 반복 되는 일상에 빠져 한 생각 챙기기 어려워하던 당신을 과감히 식탁 앞에 앉혀 행복과 마주하게 한다. '먹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해 음식을 살피고, 맛을 음미하고, 몸에 잘 녹아들도록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여유롭게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상 차려진 밥상에 우주의 기운이 스며있다는 오묘한 사실을 절집의 식탁문화를 통해 소개한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사찰 음식 문화를 통해 내 안의 1%의 변화를 모색한다. 잘못된 음식으로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바른 음식으로 질병이 낫는다.

잡념을 비워라. 그리고 몸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행동하라. 모든 것이 수행이다.

저자는 음식 이야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풀어 보인다. 봄에는 천지의 기운이 담긴 산야초,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는 채소들, 지리산 단풍을 닮고 싶어하는 가을 음식과, 추위를 물리쳐주는 겨울 별미들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소박한 밥상으로 차려진다. 내 몸의 기운을 평등하게 키우는 오행을 품은 밥상을 통해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마음의 본래자리 찾기. 그것이 바로 식탁위의 명상이다.

가연숙 기자

나가르쥬나유파 수행체계 해설



인도후기밀교의 수행체계
정성준 지음
이스트워드 펴냄|1만 8000원

모든 딴뜨라의 왕이자 근본인 무상유가(無上瑜伽)를 논한다.

인도의 특수한 문화 환경 속에서 탄생된 비밀집회 딴뜨라(Guhyasamaja-tantra)의 성립과 교리 그리고 수행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논서가 출간됐다. '비밀'이란 신(身), 어(語), 의(意) 세 가지를 뜻하며, 붓다로 칭해진 일체의 모임이 '집회'이다. 최고의 유가 수행을 지향하는 인도후기밀교의 도상을 그려볼 수 있는 전문서적이다. 동국대학교와 인도에서 다년간 밀교와 티베트 불교를 연구해 온 저자는 대승불교 줄기의 밀교가 전개된 배경을 따라 체계적인 절대 진리의 체험을 제시했다.

공성(空性)의 깨달음에 의한 삶과 죽음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했던 후기 중관학파를 반영하여 논의했다. 의식과 호흡 등 미세한 기술적 문제의 참구를 기초로 이론과 실전을 완성시킨 나가르쥬나(용수)유파의 수행체계를 해설했다. 수행 방법으로서 많은 유파의 무수한 탐구에서 비롯된 '생기차제(生起次第)'와 '구경차제(究竟次第)'를 구체화 한다.

가연숙 기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 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천연 유황 온탕욕을 가정에서 즐기세요.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 히말리아산 천연유황소금 블랙솔트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유황온천
유황온천은 유황, 나트륨 성분과 알칼리성 라듐 등으로 아토피, 무좀, 비듬, 피부병, 주부습진, 피부미용, 성청결용, 피로회복, 신경통, 관절염, 만성습진,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문헌참조)

대자연의 선물 블랙솔트
블랙솔트는 고대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열에(5,000℃이상) 의해 해수(바닷물)가 증발되며 산으로 형성된 천연암염과 용암에서 분출된 천연유황 성분으로 고대 청정해수를 구성하는 천연 미네랄과 무기질이 원형그대로 함유된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황온천보다 탁월한 천연유황 온탕을 가정에서 즐긴다
블랙솔트는 초자연적으로 형선된 자죽염 성분과 천연유황 성분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온탕욕에 따뜻한 물과 블랙솔트를 풀어주시면 유황온천보다 효능이 뛰어난 천연유황해수 온천탕욕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기실수 있습니다.

아토피, 무좀, 비듬 등에도 효능
100:1 정도의 물과 희석하여 완전히 융해된후 인체의 해당부위에 충분히 스며든후 가볍게 맞사지 한 후 씻어주기를 반복하면 아토피등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솔트는 피부미용, 습진, 신경통에도 최고!
블랙솔트에 함유된 자죽염 성분은 피부 미용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럽게 가꾸어 주며 피지 제거 작용이 우수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부패시키는 산화력을 억제하여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매우 탁월하여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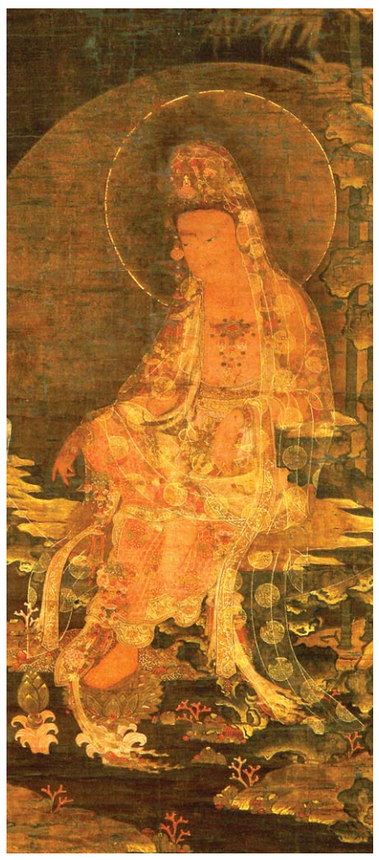
독점수입판매 : 블랙솔트코리아 02)723-9184
농협 : 강환영 053-12-125418 원산지 : 히말리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영원한현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보살님, 진짜 '보살'의 뜻을 아십니까?



수월관음도.

'보살.' 불자들이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다. '위로는 진리(깨달음)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 한다'는 이념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잘 알고 있다.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은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존엄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파악하고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한 커다란 운동으로 자리매김됐다. 종교적 측면을 벗어나서도 복지사회에서는 이 보살 사상이 매우 선진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념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중생의 행복을 견인하는데 더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은 보살사상의 궁극이다. 보살은 발심과 서원과 실천을 생명으로 하고 실천의 구체적인 지표가 바로 육바라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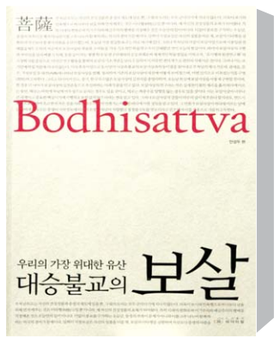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편집한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유산 대승불교의 보살'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보살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위대한 유산' '대승불교'을 굳이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살 사상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성불해야할 공동체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살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성불하기 전의 부처님 다시 말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타카> 등의 경전에서 성불 이전의 부처님을 보살로 칭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륵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과 같은 천상적 보살이다. 이 같은 보살의 개념은 초기불교의 자력적 요소에 비해 타력적 요소를 받아들인 대승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는 붓다가 되고자 원을 세운 중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대표적이다. 현실과 유리된 세계에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유형의 보살인 셈이다.

보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동기다. 서울 금강선원의 혜거스님이 보살정신의 구현을 발원하고 함께 뜻을 모은 6명의 학자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 집필했다. 책의 집필과 출판 동기 역시 보살정신을 닮아 있는 것.

1부에서는 이자랑 박사가 '자타카 및 불전문학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정리했고 안성두 박사는 '대승불교의 이념과 보살사상의 특징'을 이영진 박사가 '초기 대승 경전에 나타난 보살의 이념'을 차상엽 박사가 '중기 대승논서에 나타난 보살 사상의 특징'을 각각 집필했다. 보살 사상의 내용을 주로 다룬 2부에는 김성철 박사의 '보살의 발심과 서원' 원과 스님의 '6바라밀의 실천' 안성두박사의 '보살윤리의 성격'이 차례로 실렸다.

임연태 기자mian1@hanmail.net



대승불교의 보살
안성두 편집|씨아이알 펴냄
1만 8000원



선의 산맥을 천천히 올라보자

'언어도단(言語道斷).' 선(禪)에서 언어는 장애물이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해버리면 이미 말에 집착하고 분별하므로 말길이 끊어진 곳에 진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말이 없으면 진리는 무엇으로 전하나?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질을 하고 눈을 꿈쩍거리는 것으로 법을 전하는 게 선가의 가풍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나눠 앉고 관 밖으로 발을 내민 것도 언어 이전의 언어를 전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징은 어디까지나 전하고 받는 사람의 근기가 합일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닭을 본 사람에게는 '꼬끼오' 소리만 내도 닭을 인식하지만, 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닭의 그림을 그려 주어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문답은 언어로 언어를 잘라 내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획득하는 전광석화 같은 구도행각이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입장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문답 밖의 문답'에서 '내 안의 진리'를 챙겨야 하는 철저함이 그 생명이다.

수행 전문 작가로 활동해 온 김성우(현대불교 취재부장)씨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 이후 현재의 해동선원 조실 성수스님에 이르기까지 13명의 선사들이 남긴 선문답을 풀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했다.



禪答 진리를 묻고 깨달음을 답하다
김성우 지음
은행나무 펴냄|1만2000원

선 수행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왜곡됨이 없는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선사들이 남긴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진리를 획득하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도도한 선의 산맥을 저자의 차분한 해설과 함께 오를 수 있다.

임연태 기자

행복하고 싶다면 매순간 깨어있으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성취해야 할 진정한 목표다."

현재 서양에까지 널리 영향을 펼치고 있는 스님을 꼽는다면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베트남 출신 틱낫한 스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현자(賢者)가 있었다. 태국 밀림 속에서 평생 전법을 하며 살아간 아잔 차 스님(1918~1992)이다. <아잔 차의 마음>은 구도와 전법,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남기고 간 아잔 차 스님 그 자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매 순간 '깨어있으라'며 평화로운 삶을 당부해 온 스님의 법문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을 일갈한다.

이 책에서는 아잔 차 스님이 즉흥적인 모임에서 법문한 내용을 주로 엮어 놓았다. 즉, 생생한 육성 그대로라는 것이다. 아잔 차 스님은 미리 법문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순간순간 마다 필요한 법이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잔 차 스님의 가르침은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예리하다. 때로는 유머를 섞어 이야기 하지만 그 유머는 '법(法)'을 꿰뚫고 있다. 스님의 육성을 따르다 보면 '마음훈련'에 돌입하게 되고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알게 되며, '육체를 개발하듯 마음을 개발하'게 된다.

아잔 차 스님은 생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입고 있던 옷 한 벌이 전부였다. 하루의 스무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일로 보냈고 짚으로 엮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당뇨와 갖가지 말라리아 병을 앓았으며 먹을거리도 형편없었다. 소위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행복'을 찾았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서다.



아잔 차의 마음
아잔 차 법문 • 이진 옮김|조화로운 삶| 2만 3000원

내밀한 행복을 찾는 법은? "공부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말과 행동, 생각에서 결실을 맺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수행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수행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공부해도 해탈의 참맛은 알 수 없다."

아잔 차 스님은 "닭똥만 줍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강진 기자

'불교연구총서' 첫 번째 도서

"반야바라밀과 무분별지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같다는 뜻으로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연구
김성철 지음|씨아이알 펴냄|2만원

불교 사상에는 궁극적 진리 인식을 통해 번뇌를 벗어나고 윤회와 고통의 세계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실천 목표(해탈지)가 있다. <섭대승론>은 해탈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 등을 가행무분별지 · 근본무분별지 · 후득무분별지 3종으로 나눠 설명한 논서다. 국내 유가학 전문가인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3종 무분별지 특히 근본무분별지로 정립되는 과정을 추적 · 묘사함과 동시에 <섭대승론> '증상혜학분'의 티벳역을 세친 · 무성의 주석과 함께 역주해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연구>를 출간했다.

책은 해탈지의 초기 양상을 시작으로 근본무분별지의 형성과정, 삼성설의 변화와 무분별지 개념의 발전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또 <섭대승론>의 티벳역과 세친이 주석한 티벳역, 무성이 주석한 티벳역을 수록해 <섭대승론> 연구자에게 도움을 더했다.

현대 불교 문헌학 연구의 전형적인 틀을 갖춤과 동시에 문헌학적 방법론의 성격과 한계에 도전하는 책은 김교수의 유가행파에 관한 해박한 식견에 한역 · 산스크리트 원전 · 티벳 원전 등 <섭대승론>에의 다양한 접근을 모두 담고 있다.

한편 이 책은 불교학 전공 소장학자들을 지원하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의 소장 불교학자 지원사업인 '불교연구총서' 첫 번째 도서로 발간됐다. (02)2275-8603

조동섭 기자

금주 캠페인 쉽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안타까운 이승의 삶 달래주는 웅장한 무덤



19대 숙종 원비 인경왕후 – 익릉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1661~1680)



익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익릉(翼陵)은

제19대 왕 숙종의 비 인경왕후 김씨의 능이다. 서오릉 중 하나로, 능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능이다. 숙종 때 조영되었으나 숙종이 아직 능의 석물을 간소화하라는 교령을 내리기 이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국조오례의〉의 제도를 따르고 부분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을 따랐다.

정자각은 당시 유행하던 익실을 갖추고 전면과 측면이 1칸씩 늘어난 전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이다. 크기나 모습이 숭릉(崇陵)의 정자각과 거의 같으나 맞배지붕에 방풍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능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봉분 주위에 난간석만 둘렀는데, 난간석에는 방위 표시를 위해 십이지를 문자로 새겨 넣었다.

봉분 앞에 있는 장명등과 망주석의 대석(臺石)에는 꽃무늬를 새겼고, 망주석은 귀의 구멍이 사라지고 세호(細虎)가 위로 오르는 모양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3면의 곡장과 봉분을 에워싼 석양 및 석호 각 2쌍, 혼유석 1개, 문무인석 각 1쌍, 석마 2쌍이 있다. 서오릉=사적 제198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면적 182만9792㎡(55만3512평).

능의 규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익릉은 서오릉 중에서 가장 장엄(?)하다. 능호에 썩 잘 어울린다. 홍살문 밖에서 바라보면 막 이륙하는 점보기 같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는 위쪽으로 경사지게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정자각 뒤로 능상이 우뚝 솟아 있다. 대단한 권력자의 무덤 같다.

실은 거기에 잠든 이는,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인경왕후다. 왕후는 딸 둘을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요람에서 사망한 걸로 추측된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는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이다. 1670년(현종 11) 10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의동 별궁에 들어갔고, 다음해 3월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674년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고, 1676년 정식으로 왕비의 책명을 받았다. 1680년 10월에 천연두 증세가 보였는데, 이때 숙종은 천연두를 겪지 않아 면역이 되어있지 않았다. 천연두는 전염병이다. 약방도제조 영의정 김수항의 건의에 의하여 왕은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왕비는 발병 8일 만에 경덕궁에서 운명하였다.

천연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한 전염병 중 하나였다.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데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곰보 자국이 얼굴에 남는다. 발병 원인을 몰랐던 사람들은 심지어 병이 별똥별 또는 지진 때문에 생긴다거나 악령,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래서 천연두의 공식 병명은 '두창(痘瘡)'이지만 민간에서는 '마마' 또는 '손님'으로 불렸다.

상감마마, 중전마마 등 왕과 왕비에게 붙이는 '마마'라는 최상급 존칭을 질병에 붙이면 병을 옮기는 역신이 노여움을 풀고 기분이 좋아져 환자의 몸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또 병이 나면 터줏대감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낫는다고 여겨 '대감놀이'를 했다. '몹시 애를 먹다'라는 뜻의 의미로도 쓰이는 홍역은 '작은 손님', 천연두는 '큰 손님'으로도 불렸다. 조상들이 천연두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천연두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황제들의 저승사자로 군림해 왔다. 이집트와 전쟁을 하던 히타이트 왕과 왕자, 명상록으로 유명한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이슬람 칼리프 아바스 알 사바, 영국 여왕 메리 2세, 러시아 황제 표트르 2세, 프랑스 황제 루이 15세, 6세에 청나라 황제가 되어서 18년간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순치 황제 등도 모두 이 병에 걸려 죽었다. 그리고 이들 통치자들을 데려갈 때마다 나라와 제국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천연두에 걸렸던 통치자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니다. 운 좋게 천연두 저승사자로부터 살아남은 사람 중에 유명한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아브라함 링컨이다. 천연두는 1979년 소말리아의 마지막 환자를 끝으로 WHO가 공식적으로 박멸한 것으로 선언했으나 연구용 균은 보관하고 있고, 화생방전의 수단으로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중전마마는 마마에 걸려 급서했지만 급히 거처를 옮긴 왕은 마마를 피했다. 숙종이 감염되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익릉의 계단식 참도.

노론의 대표적 인물 김만기 딸로 10세때 세자빈 간택
왕비 책봉 4년만에 천연두 발병…20세 나이로 요절



익릉을 관람하는 답사객들.

왕비는 나이 20세에 운명하였기에 장희빈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다. 장희빈은 1686년(숙종 12) 숙원이 되었고, 1688년 소의로 승진되었다. 그때 이미 인경왕후는 이 세상에 없었다. 숙종의 여인 편력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원비 인경왕후 자식 없이 천연두로 20세 사망, 제1계비 인현왕후 폐결핵으로 35세 사망, 제2계비 인원왕후는 24세 때 천연두를 앓았으나 극적으로 회생했다. 그러나 흉한 병의 흔적은 남았다. 영리하고 애교스럽고 건강한 희빈 장씨, 숙빈 최씨 등 후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당연하다.

중전이든 후궁이든 왕의 여자는 정략적 관계의 산물이다. 애초부터 애틋한 사랑이 싹터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다. 권력의 정점인 왕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 최고의 방법이 혼인이다. 세도가들의 기대와 왕가의 뜻이 합치된다.

인경왕후는 노론의 대표적 인물인 김만기의 딸이다. 서인은 노장파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소장파 한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노론, 소론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예악의 태두 김장생의 문인들이었다. 김장생은 김만기의 고조부다. 인경왕후는 이른바 명문가 출신이다.

숙종조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 사색붕당의 격전장이었다. 숙종은 세 차례 걸쳐 환국이란 이름의 정계 개편을 통해 붕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왕에 대한 충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유능한 신하의 희생도 컸다. 윤휴, 이원정, 송시열, 김수항, 박태보 등이 희생되었다. 인현왕후 폐위, 장희빈 사사 등도 정국 전환의 희생물이다.

김만기는 1671년 딸을 세자빈으로 들여보내고, 1673년 영릉(寧陵, 17대 효종릉)을 옮길 때에 산릉도감의 당상관이 되었다. 1674년 7월 병조판서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해 소를 올려 3년상을 주장했다.

그 해 숙종이 즉위하자 왕의 장인으로서 영돈녕부사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총융사를 겸관해 병권을 장악했고 김수항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때 훈련대장으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남인과 맞섰다. 그리고 강만철 등이 허적의 서자 견(堅)과 종실인 복창군 · 복선군 · 복평군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노론의 과격파로서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삭직되었다가 뒤에 복직되었다.

서오릉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꽃비가 흩날린다. 소용돌이 정국의 중심에 있었으나 20세에 죽는 바람에 험한 꼴은 목격하지 않았다. 꽃다운 나이에 낙화가 되어 싸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중전이 된 인현왕후, 장희빈 등을 생각하면 요절도 때로는 복이 된다.

부부 금슬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략혼인이었지만 딸 둘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 정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더욱이 능을 이렇게 거창하게, 위엄마저 풍기게 조성한 것은 왕비에 대한 숙종의 속내를 짐작케 한다. 지금도 숙종의 혼령이 밤에 몰래 빠져나와 속삭이고 가는지, 약간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장희빈묘에도 들를까. 서오릉에는 숙종의 여자 4명이 잠들어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서울 불자를 위한

부처님 진신사리
서울(상원사) 친견 특별 대법회

2008년 5월 23일 ~ 5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1-1 상원사

주 최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대림2동 상원사
문 의 | 상원사 종무소 TEL. 02)833-0374~5
후 원 |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상원사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6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안 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범음범패 전통의식

3개월 속성반(10기생)모집

□ 교육내용

①송주편 : 도량석, 조석종성
②예경편 : 상단, 조석,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 등
③헌공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칠성, 산신, 득성, 용왕, 조왕청 등
④재의식편 : 49재, 천도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고사, 방생
⑤시식편 : 관음, 화엄, 구병시식, 상용영반

□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08년 6월 2일 (월요일) 오후5시
• 교육시간 : 매주 월,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복습용 당일교육내용 테이프 녹음하여 당일 드립니다.

<전문반>

• 재의식반(북, 사물다룸)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5시 ~ 7시)
• 천수바라, 작법무 :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오후 각 1시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2매, 등본 1통
□ 교육장소 : 부산 동래구 낙인동 84-8 보림프라자 2층

「불교의식에 관한 궁금증을 연마하는 좋은 기회로 인연을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범음범패교육대학 낙인동 몽불사 대법당**

전통의식 전수자 보덕 법관 합장(비구니 스님임)
TEL 051)528-4177 / H · P 011-6661-3328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봉 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인 일동

본지 현대불교신문 제678호(5월 7일자) B8면에 게재된 '옥천범음대학 봉축광고'는 본사 제작상의 실수로 잘못 게재 되었기에 다시 수정 게재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옥천범음대학의 혜량을 바랍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화제의 책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 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읽고나면 일체의 고통과 절망의 시름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마침내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화재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 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 터 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전생 · 빙의 · 자기 최면 · 치료최면

개 강 일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2개월 주 1회 (총 8회)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교육비용	6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 지도자. 최면 관심자
교육내용	자기 최면 / 타인 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전생퇴행법 / 우울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스트레스 / 수면장애

◆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 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 이용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것인가를?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수강비가 수백만원씩 해야만 고급교육일까요?
훌륭한 강사 입니까?
소승은 최면의 본질적 이고 체계적인 최면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희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무초 정락 합장

사단법인 **해동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 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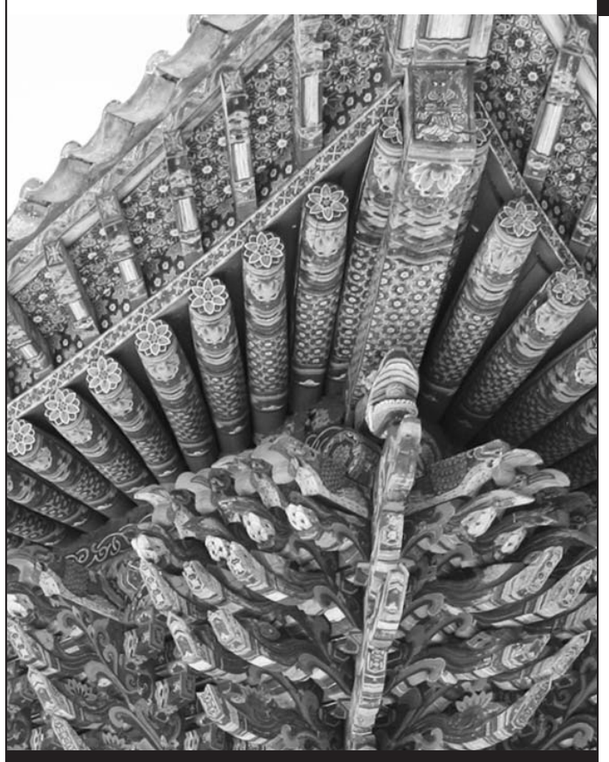




원장 우혜안 스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진주 사천
- 총평수 : 8,000평(100% 사용가능)
- 종교용지 및 버스주차장
- 법당 30평, 산신각 20평, 관음전20평, 대중방 15평, 요사채 70평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24억원 반값매각(개인사정 급)

임법당
- 위치 : 부산 범일동
- 대지평수 120평(시유지)
- 건물 :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화장실(초현대식)
- 마당 5층 석탑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위치 : 충북	위치 : 강원 동해
법당 : 21평	법당 : 13평	법당 : 20평
요사 : 20평	요사 : 40평	요사 : 60평
부지 : 190평	부지 : 380평	부지 : 800평
가액 : 7억 5천 (융자 2억 가능)	가액 : 3억5천	가액 : 5억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50평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융자 2억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 법당 : 20평(방 3개)
- 요사 : 8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포교당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20-0455/서울 010-5828-04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3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 1억

010-3553-7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대지 500평, 건평 120평 임법당, 삼존불 마을근접, 풍수좋음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8545-654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전통사찰
- 대지 : 720평, 법당50평, 30평 요사채30평, 종무소 20평
- 가액 : 13억원

대구시내, 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절터 별장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근교
- 관리지역 약 500여평
- 가액 : 4천5백만원

010-4707-8090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임법당 1, 공양간 1, 컨테이너방 2개
- 산신불 모셔져 있음
- 스님 기도하기 최적합
- 물좋고 조용한 산사 산약초, 텃밭 있음
- 가액 : 3천만원

010-4660-5388

제주 암자 안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4평. 마당에 연못 있음
- 임법당 30평(법당 15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18-590-3583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약 110평
- 법당 : 약 55평(삼존불,삼성단등)
- 요사 : 약 55평 (방3개,상담실,거실등)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경인 국도변)
- 평수 : 70평
- 방3, 법당, 공양간 도시가스, 샤워실, 시설완비
-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지하철 5분거리)
- 법당 시설 완비 차 진입가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1)294-1204
010-9998-29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지하철역 부근
- 50평(6층 건물중 6층)
- 특징 : 교통편리, 전망좋음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588-2208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상주시 화남면 속리산 아래
- 약 170평. 계곡접
- 목조, 흙벽돌 건물 건축중인 토굴
- 가액 : 4,000만원

011-701-02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시장삼거리
- 50평(2층 건물중 2층)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급하게 쓸 역학도 가르쳐 드림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법당 20평(2층)
- 삼존불, 시설완비
- 일신상 법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급히 양도하고자 함
-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는 차후 상의

016-451-764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내당동
- 법당 40평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6594-8808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절터 · 별장 · 팬션

- 위치 : 양평 용문산자락
- 평수 : 250평
- 좌청룡 우백호, 정남향 전망, 경관 최고
- 투자가치 최적지
- 가액 : 시가 2억5천을 1억7천5백만원에 급 양도함

011-531-5562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합천 해인사 안 계곡(가야산)
- 크기 : 450평
- 앞쪽 계곡, 뒤는 산
- 임법당, 요사채 45평, 방7개 옛집 12평, 창고 20평 전답 800평 사용
- 심야보일러, 법당, 주방 일체완비
- 특징 : 해인사 계곡, 해발 900고지 최신 황토방, 요사채
- 가액 : 9천 8백만원(대출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010-6797-322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내
- 2층 건물중 2층 약 30평
- 법당1, 방3, 주방 에어컨등 시설일체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역학하시는 분 적합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일체 450만원(절충가능)

011-9590-507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IC 5분거리
- 평수 : 대지 12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주차장 200평 밭 20평(임대)
- 가액 : 2억 3천만원

055)362-3650

사찰 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
- 건물 1동 30평
- 종교용지 300평
- 250m 지하석수, 전기 청정계곡 영골
- 가액 : 7천 5백만원

011-494-0977

20년 전통 사찰 전세급 안내

- 경기도 포천시 시내권 내
- 2층 한옥
  1층 : 큰방3, 거실 및 주방
  2층 : 법당, 삼존불, 산신각
- 주차장 및 텃밭 있음 즉시 법회가능
- 전세 3500만원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289-0075

암자(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대지 : 45평
- 방2, 주방, 욕실 (전기수도, 기름보일러)
- 암자기도처, 명당토굴, 산세수려함. 차량진입가능
- 가액 : 7천

018-540-5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중심
- 대지 100평내에 단독주택 법당1, 방2, 거실 및 주방1
- 보증금 2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약간(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동

011-458-295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서울산아래
부지 : 1,000평	대지 : 국유 300
법당 : 30평 목조	법당 : 45평기와
요사 : 30평	요사 : 25평
가액 : 10억	가액 : 9억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내 천은당 한의원과 같이 있는 한옥 1채
- 평수 : 약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67-4192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바닷가 5분거리, 주문진 해수욕장
- 건물 2동, 대지 80평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 (기한 5년까지 가능) 양도가 9천 500만원(등기 완료)

010-5201-833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반야계곡
- 평수 : 3200평 • 대지 : 20평
- 가액 : 6천만원

016-9707-3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선암
  주 지 : 연공(최영희) 승려번호 : 022-0041
  주 소 : 부산 금정구 서1동 302-1204번지

상기 사찰과 상기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두선원
  주 지 : 자윤(정순옥) 승려번호 : 2549-1230
  주 소 : 부산 중구 부평동 2가 31번지
- 사찰명 : 연주사
  법 사 : 연주(박영숙) 법사번호 : 2547-0113
  주 소 : 부산 진구 초읍동 263-25

상기 사찰과 상기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함께가요~ 강의실로!

“믿음을 가져라 청정을 얻으리라”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⑥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 김응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불교인재개발원 원장)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5월 7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성도후 안거하며 교화행 펼쳐…제자 계속 증가

이번 대중강좌의 취지는 기존의 붓다생애에 대한 팔상성도의 상징성 수준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려보는 붓다의 발자취에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한국 불교계의 문제를 고민해봅니다. 그 대안의 첫 번째는 신앙생활 차원을 넘은 신도 교육입니다. 훌륭한 불교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할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붓다의 일대기를 놓고 자신 있게 강의할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승가 조직은 2600여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개선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재가신도 조직은 일시적이거나 단위 사찰에서 임시적인 조직 특성을 지닙니다. 다음번에 열릴 강좌는 신도 조직 속에서 멘토(Mentor)와 멘티(Mentee) 개념으로 멘토링(Maantoring)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심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법등장(法燈匠) · 법륜장(法輪匠) · 법해장(法解匠)으로 각 사찰에서 확산시켜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신도조직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참다운 신행 생활 속에서 우바새 · 우바이 양성을 위한 법의 등불을 밝히는 초석이 되는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교의 발전은 베풀기와 나눔이란 이름의 복지 포교입니다. 사회 복지와 자원 봉사 활동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냐가 관건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보완하여 마지막으로 문화포교와 수행 포교의 시대를 열어야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을 증득하고 해탈(解脫)에 이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붓다는 단 한 번도 깨달음 그 자체를 설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사성제를 통해 이르게 되리라”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유정법(無有定法)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붓다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아 체득해야 설법이 가능하고 비로소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붓다의 교화설법활동 전기는 시대적 구분에 의하면 45년 교화 활동 중 전반기 20년입니다. 당시 붓다는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법하셨고, 사리불 존자께서 붓다의 시자를 하였으며, 설법의 주요 장소는 마가다국 라자가하에 위치한 죽림정사입니다. 초기 불교 교단을 형성하고 주요 제자를 얻게 되는 활동의 시기입니다.

우선 불기(佛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올 해 불기는 2552년입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불교와 태국 불교의 입장을 이해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중국 주나라 연표를 따라 써왔는데 그 기준을 따르면 3천년이 넘습니다. 그것을 태국 안으로 바꿨고, 다시 스리랑카 안으로 바꿔 오늘의 불기가 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역사에 나오는 아쇼카 왕과 관련한 내용을 기점으로 역산출한 연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불기를 위해 현재 붓다의 연표는 체계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시하는 연표는 우안거(雨安居)를 드신 해를 중심으로 잡은 것입니다.

붓다 35세, BC589년 한국 기준 12월 8일 6년간의 고행 끝에 네란자나강 옆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도를 이룹니다. 붓다는 오도송(悟道頌)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에게 진실로 법칙이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니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낸 까닭이다.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을 알아낸 까닭이다”라는 성인의 네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성제’로써 붓다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즈음해서 붓다의 제자들은 언제 무엇을 듣고 깨우쳤을지 궁금해집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일찍 깨우친 제자들의 공통점은 사성제를 통한 깨달음이란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할 당시 대부분은 재가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성제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세속의 생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가 되어 붓다를 따릅니다. 붓다의 10대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승불교에서 정리한 제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함경>에 의하면 붓다의 10대 제자는 비구 마흔일곱 · 비구니 열셋 · 우바새 열 · 우바이 열 명으로 총 80명인데, 아난존자는 다섯 분야에서 10대 제자였습니다.

첫 우안거는 BC588년 (붓다 36세) 붓다 성도 후 2년차 때 이시파타나(녹야원)에서 납니다. 야사 등 55명을 교화하시는데, 청년 야사는 출가하여 비구가 됩니다. 야사의 공덕을 되짚어 보면 법연(法緣)을 실감하게 하는 <법구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둥게수와리(전정각산)에서 내려와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야사의 어머니이며 붓다의 초전법륜 때 다섯 비구 중 한 명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출가한 것도 첫 우안거 때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26세에 다섯 비구의 막내인 ‘앗사지’를 만나 연기법의 한 구절을 듣고 불법에 귀의합니다. 넓게 빨리 깨우친 분 목련 존자는 붓다 곁을 떠나 외호를 하고, 깊게 정확히 깨우친 분 사리불 존자는 붓다 곁에서 시봉을 합니다.

우안거 두 번째 해에 붓다는 죽림정사를 기증받습니다. 공양은 빔비사라 왕이 계속 올렸고, 왕의 건의에 의해 초하루와 보름에 포살을 시행합니다. 법회와 설법의 전통이 형성됩니다. 왕의 첫 번째 왕비는 절세미인으로 자존심이 강했는데 이를 안 붓다는 신통력으로 백골관(白骨觀)을 보여 왕비가 색교(色驕)에서 벗어나 무상(無常)의 이치를 알게 합니다. 왕비는 출가를 청하게 되고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빔비사라왕의 두 번째 부인 위제희 왕비와 아들 아자타삿투에 의한 왕사성의 비극은 붓다의 16일 설법을 기록한 <관무량수경>과 법장비구의 이야기를 통한 붓다의 전생담이 담긴 <무량수경> 그리고 이를 설법으로 인정받는 <아미타경>이 됩니다. 이 셋을 합하여 ‘정토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우안거 다섯 번째 해 BC584년 붓다의 나이 40세에 슛도다나(정반)왕은 아들 붓다의 설법을 듣고 임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샤카의 왕족 대부분이 출가합니다.

우안거 여섯째 해 니그로다라메 승원에서 주석하실 때에 12세의 라훌라가 출가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인 붓다를 따라간 라훌라에 의해 최초의 사미제도가 시작됩니다. 구오사미 · 응법사미 · 명자사미로 구분 되었고, 율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우안거 일곱 번째 해에 아난존자와 데바닷다 등이 출가하고 33천계에 태어난 붓다의 어머니 마야왕비를 제도한 설법 내용을 사리불에게 설명합니다.

우안거 여덟 번째 해에 베샤깔라 숲에서 수행자가 생각해야 할 여덟 가지를 설합니다. 욕심을 없애고 만족을 알며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바른 생각을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지혜를 증득하여 희론(戱論)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안거 열 번째 해에 바람직한 승가상으로 화합승가를 제시합니다.

우안거 열네 번째 해에 20세의 라훌라는 구족계를 수지합니다. 밀행제일 라훌라의 화상은 사리불 존자였고 계사는 목련 존자였으며 아사리는 마하가섭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붓다는 라훌라를 위해 사위성으로 가셔서 오온(五蘊)에 관한 공(空)의 설법으로 무상을 깨닫게 합니다.

우안거 열여섯 번째 해 BC573년 붓다의 세수 51세에 인간의 살을 먹고 사는 악마 알라와까를 개종합니다. 알라와까의 물음에 붓다는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구의 청정을 얻으리라” 답합니다. <잡아함경>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안거 스무 번째 해 BC569년 붓다의 세수 55세에 시자 사리불 존자(45)는 붓다에게 젊은 시자로 교체하길 청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도 당시 45세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로써 아난다가 붓다의 시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현실감 있는 붓다의 교화 전기 일상을 성도 이후 안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붓다의 중생 교화를 방법론적 측면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불교 발전을 위한 나의 노력을 고민해 보십시오. 법회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우리 불자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반드시 붓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해석돼서 자유롭게 전달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Tip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대중강좌는 3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 문의 및 접수 : 불교인재개발원 (02)735-2428

5월에 있는 木曜강좌

“선문촬요 (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참선! 모르고 하면 어리석음만 짓습니다.

달마 祖師께서 “禪門” 을 열어주는 길 “선문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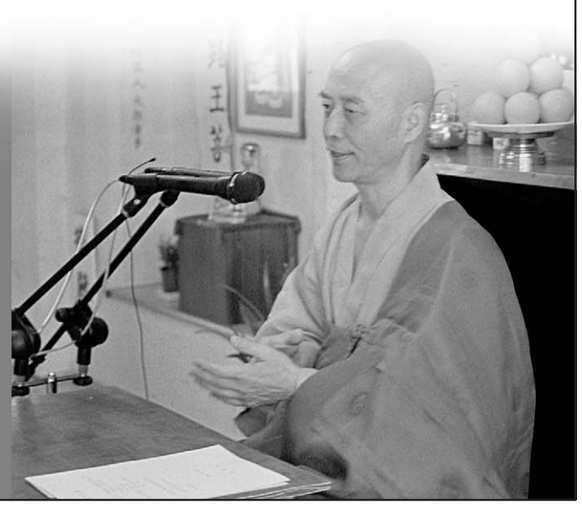
그냥 널려져 있는 불교는 약처방은 있으나 의사 없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쓰면 오히려 불교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은 스트레스로 묶여 있습니다. 禪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긴장을 풀게 합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밝아집니다. 묶여있는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은 바로 그가 오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문촬요”는 서산, 경허스님 등 모든 종사가 의지했던 서책입니다.



서울 六祖寺 현웅스님께서 직강설 합니다.

■ 일 시 : 시작 – 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회향 – 08년 9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교재 주문 가능)
■ 동 참 비 : 4-5개월간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예금주 육조사)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在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음.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2008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귀의삼보 하옵고,
모든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입니다.
각 처에서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념하시면서 동문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동문 스님들의 평온하심을 축원하며, 불조의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회칙 제7장 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2 (‘08)년 5월 23일 오후 3시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본관 4층 대강당
◆ 안 건 : 1) 2007년도 감사보고의 건
2) 2008년도 예산 심의의 건
3) 2007년도 장학금 보고의 건
4) 2008년도 달력사업 보고의 건
5) 본회 회칙 관련의 건 – 정기총회 날짜/회계연도
6) 본교 후원회의 건
7) 기타의 건

※ 기타 문의사항은 동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929-7110 / FAX 02)929-6919 / http://ob.sangha.ac.kr

中央僧伽大學校 總同門會長 退宇正念

신불멸논쟁,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폭 넓혀

중국불교의 거사들〈10〉

남북조 시기 배불논쟁과 거사불교(2)

-신불멸(神不滅)논쟁과 거사들의 반론❶-



그림 · 김홍인

불교의 중국전래 이후, 불교의 교의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무아(無我)'와 윤회(輪廻)를 함께 설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윤회의 '주체아(主體我)'에 관한 문제였다. 이른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업보에 따라 삼세(三世)에 걸쳐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무아'설과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윤회의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다면 현생의 악보(惡報)와 전생의 업인(業因) 사이의 인과(因果)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불교인들은 중국전통의 '형신(形神)'관계에서 착안해 비록 '육체[形]'는 멸하지만 그 '신(神)'은 '불멸(不滅)'한다는 점을 제시해 그 모순을 해결하려했다. 더욱이 불교 교의 가운데 윤회의 상태를 설명할 근거인 '식(識)'의 'vijñāna'(비즈냐나)를 '신(神)' 혹은 '식신(識神)'으로 번역해 '신불멸론'의 도출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신'이 불멸함을 주장했다. 그 후 혜원 스님은 캐시미르지방에서 온 승려 승가제바(僧伽提婆)를 여산(廬山)으로 초청해 <삼법도론(三法度論)>을 번역하게 해 그의 '신불멸론'은 보다 깊은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됐다. <삼법도론>은 독자계(犢子系) 현주부(賢胄部)에 속하는 논서로 윤회 주체로서 '승의아(勝義我)'를 주장한다. 이에 혜원 스님은 '승의아'와 '신(神)'을 연결시켜 <명보응론(明報應論)> <삼보론(三報論)> 등을 저술해 보다 체계적인 '신불멸론'을 완성했다. 특히 혜원 스님은 '신'이 바로 윤회 주체이고, 만물을 생육시키며, 조화의 근원 등으로 표현했다. 나아가 혜원 스님은 '열반'을 '신'의 '명신절경(冥神絶境)'이라고 하여 '신'을 열반의 근거와 당체(當體)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철학,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신멸론(神滅論)'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신불멸론'에 대한 반박은 오히려 불교의 승려

혜원 스님 '신불멸론' 이론 정립 · 체계적 완성
'백흑론' '명불론' '달성론' 등 반론 계속 이어져

사실 윤회의 '주체아' 문제는 부처님 당시부터 부파불교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문제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논술은 생략하지만, 반대로 만약 실체성을 지니는 윤회 주체를 설정한다면 결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끊임없이 윤회의 쳇바퀴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무아'를 설하고 '윤회'를 인정해 그를 벗어남을 설하는 불교가 오히려 '주체아'를 설정해 '윤회'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나 철학보다 훨씬 합리성을 지닌다.

중국에서 '신불멸론'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은 후한시대 활동한 모융(牟融) 거사가 지은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이다. <이혹론>에서 거사는 '열반'을 '신불멸(神不滅)'의 상태로 묘사했다. 이 '신불멸' 이론을 보다 체계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동진(東晋) 명승 혜원(慧遠) 스님이다. 그는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 제5권에서 형신(形神)의 관계를 불과 장작의 관계로 설정해, 불이 끊임없이 다른 나무로 옮겨 계속되는 것과 같이

로부터 나왔다. 송(宋)의 문제(文帝)에게 총애를 받아 '흑의재상(黑衣宰相)'으로 유명한 석혜림(釋慧琳) 스님은 당시 불교의 폐해가 모두 '신불멸론'으로부터 나왔다며 그를 비판하는 <백흑론(白黑論)>을 찬술한다. <백흑론>으로 인해 당시 교단에서는 그를 승려 신분으로 불법을 비방했다는 죄를 물어 교주(交州: 현재 광동과 베트남 지방)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황제가 사면해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백흑론>은 당시 유가를 신봉하는 고위관료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형양태수(衡陽太守) 하승천(何承天)은 <백흑론>을 읽고 <보응문(報應問)>을 찬술해 불교의 전체적인 인과응보에 대해 비판했다. <보응문>에서는 자연계의 현상을 열거하고, "살생(殺生)도 악보(惡報)가 없고, 복(福)을 받는 자도 선업(善業)의 과보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러한 석혜림과 하승천의 주장에 대해 불교 측에서의 반론은 종병(宗炳), 안연지(安延之), 류소부(劉少府) 등의 거사들이었다.

종병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명불론(明佛論)>을 찬술했다. 거사는 여산 혜원문하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참여한 인물로 혜원스님의 '신불멸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 상당히 자세히 '형(形)'과 '신'의 관계에 대하여 논증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과응보를 형성하는가를 설명했다. 하승천이 종병 거사에게 보낸 편지인 <답종거사서(答宗居士書)>에서 "장작이 다하면 불은 소멸할 뿐인데, 어찌 불이 홀로 전해지겠는가?"라는 비판에 종병 거사는 그에 대한 화답인 <답하형양서(答何衡陽書)>를 통해 "불은 장작으로부터 나오지만, 신(神)은 형(形)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정신(精神)이 극(極)에 이르면 형을 초월해 홀로 존재한다. 형이 없이 신이 존재하는 것은 법신(法身)이 항상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다. 여기에서 인식과 사상의 범위를 현세에 한정시키고 중시하는 유가와 삼세육도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불교의 극명한 차이가 엿보인다.

<명불론>의 반박에 하승천은 다시 <달성론(達性論)>을 지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生必有死), 형이 흩어지면 신은 멸한다(形散神滅)"는 <달성론>의 논리 때문에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하승천은 <달성론>에서 자연현상으로부터 인간과 생물의 차별성을 강조해 인간은 축생과 동류일 수 없고, 따라서 축생을 포함하는 육도윤회를 받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런 하승천의 견해는 유가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에서 비롯된 인간중심주의였다. 이에 대해 안연지 거사는 <석달성론(釋達性論)>을 저술해 반박했다. 안연지 거사는 시문(詩文)에 있어 사령운(謝靈運) 거사와 함께 논의될 정도로 남조(南朝)에서 손꼽히는 문인으로, 영가(永嘉) 태수와 광록대부(光祿大夫)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귀족이다. 안 거사는 <석달성론>에서 바로 인간이 비록 우월하지만 '생명'과 '함식(含識)'을 지닌 점 때문에 '중생(衆生)'의 범주에 들어있고, 그에 따라 인과응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다.

안연지 거사의 반론에 하승천은 다시 <답안광록(答安光祿)>을 지어 그를 비판했다. 하승천은 "인간은 모두 성인(聖人) · 대덕(大德)으로부터 오상(五常)을 품부 받았는데, 어찌 축생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쳤고, 이에 안연지 거사는 다시 <중석하형양(重釋何衡陽)>을 저술해 반박했다. 특히 안연지 거사는 이 글에서 '성인'은 다만 '신명(神明)'을 갖추어 뛰어난 사유능력을 지녔을 뿐이지, 본질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성인'조차도 '중생'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까지 도출시켰다. 이런 안연지 거사의 반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 특히 전통적으로 논하는 '성인'조차도 삼세를 윤회하는 '중생'의 범주에 속함을 논증시킨 것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중국불교, 특히 선종에서 등장하는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의 실마리가 안연지 거사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류소부 거사도 종병 거사와 같은 제목의 <답하형양서>를 지었다. 그는 이 글에서 인과응보에 대해 자연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인간사회의 인과관계를 확대시켜 논증했다. 류소부 거사의 특별한 점은 유가의 '예교(禮敎)'의 발생과정을 역사적 관점으로 고찰해 그것이 결국 인과응보에 의하여 형성된 것임을 논증했다. 류소부 거사의 논증 역시 상당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가졌다. 불교사상적 색채가 가득한 역사관으로 유가의 '강상명교'를 재조명했다는 점은 유가의 반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 불교에 대한 반박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교의의 역사적 조명을 통한 맹점을 잡아야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혜림 스님과 하승천에서 비롯된 '신불멸논쟁'은 결국 당시 황제인 문제가 종병, 안연지, 류소부 등에게 높은 평가를 내리며 일단락됐다. 이때 '신'의 '멸'과 '불멸' 논쟁은 다만 윤회 주체로서 업의 '인과응보'에 집중됐다. 불교는 이 논쟁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인과응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됐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불교와 유가의 사상투쟁으로 '신불멸논쟁'은 양무제(梁武帝)와 범진(范縝)에 의하여 재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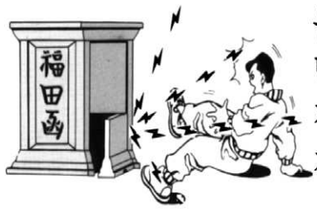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봉축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대성스님
부 총 재 정여스님 수불스님
사무총장 무관스님
협 회 장 백명숙 사무국장 이욱태
고등부지회장 박병택 중등부지회장 손태석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파라미타
TEL 051)513-4306 / FAX 051)513-4307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 무 남영희
재 무 정지연
운영위원 박애순, 김명애, 정지연
해외협력부장 김애영
감 사 이위교
■ 서울사무국 ☎02)720-1708 ■ 부산사무소 ☎051)818-3427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천하대도 생노병사 일체를 다스리는 육경신도통 천이통 및 배꼽과 두뇌호흡으로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건강장수 도통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장수 비법으로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이 기도는 한 번만 하여도 앉아서 10년 동안 수행한 것과 같은 도를 얻는 것이다.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타심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은 心의 근본인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점안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경신일날 천일통과 마음의 점안을 안하면 성불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천세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가 아니고는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 것이고 도통군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되는 것이다.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 주문으로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천이통 법회에는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혜원상생 도통하는 건강,특별 기도 성취하는 천이통 기도인 것이다.
본 도량에서는 심신 수련을 하거나 수행할 도반이나 몸에 건강이 부족하여 수행할 인연자도 환영합니다. 당신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心 천이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천이통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건강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행할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대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제일의 건강 황제가 되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건강장수 비법과 여자로서도 천하를 다스렸던 중국의 측측무후가 수행한 기법인 천하대도 기천법인 배꼽과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이 하나되어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마음의 병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육경신 수행인문으로 만사형통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수행처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 건강수를 마시어 고혈압, 당뇨, 살이 빠지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 곳.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5월 19일(음, 4월 15일 월)(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5월 20일(음, 4월 16일 화)(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 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육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오신 것도 가신 것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처님!

(지난호에 이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건지고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면서 말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지만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나 자체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공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그러고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아들이 되고 "여보!" 그러면 남편이 되고, 금방금방 달라지죠? 어때요? 그렇게 자꾸자꾸 화해서 바로 바꿔지는데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까요,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가지고 고정됨이 없으니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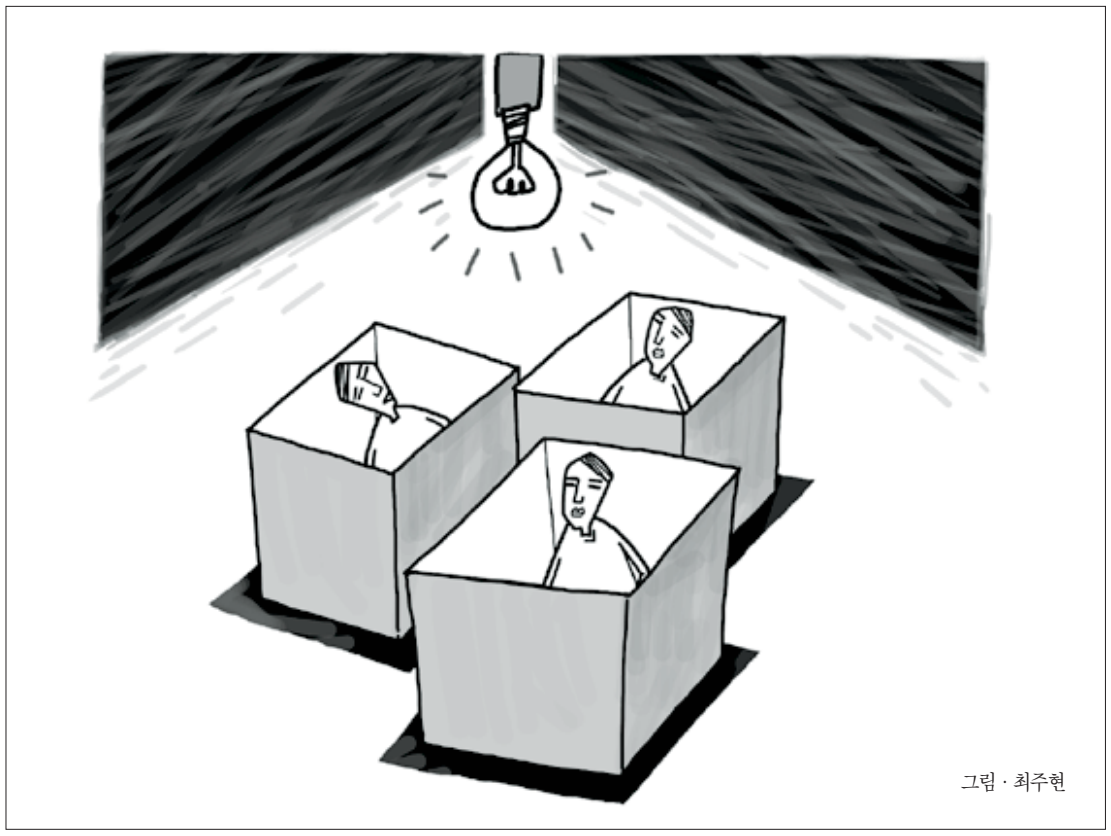
그러니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한 도리니 거기에 착을 붙이지 말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놓고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 거를 그냥 아둥바둥 아둥바둥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해서 살아요. 남편이 승진을 해야 한다면 그냥 바깥으로 온통 쏘다니면서 야단법석들을 하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상생활의 일체가 다 그래요. 내 원자한테다가 맡겨 놓으면 원자가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화해서 다 다니면서 마음 조절도 하고 안되는 거 되게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편리한데 말입니다. 심성과학이라는 게 지금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심성과학을 쓰지 못하고 그냥 과학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하하하….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하다' 말할 수가 없으리만큼 이 세상 만물만생이 전부 감사해요.

자비가 뭔 줄 아십니까? 자비는 사람들을, 서로를 모두 편안하게 해 주면서 서로 고통을 면하게 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면케 해 주면 스스로 편안해지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얄팍하게 입술에 붙여 가지고 사랑 사랑 하는데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못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변덕쟁이를 사랑이라고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러고도 고질병이 들거나 병을 길게 앓는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선….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겁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입가에 붙이고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다. 결국은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처가 있고 자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부터 알아야 일체제불의 그 마음을, 송두리째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나고 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그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죠? 여래고요. 여러분의 집이 헐어지면 누가 고치죠? 누가 고칩니까? 집 주인이 고치죠? 타인이 고쳐 주는 법 없죠? 허허허…. 그런데 여러분의 몸뚱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에요. 집과 같은 겁니다. 그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고치려면 마음으로 진정코 거기다 맡겨 놓을 때 바로 마음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게 되면 모자라는 데는 보태 가면서 서로서로의 집을 고치느라고 작용을 하죠.

그러니 몸뚱이도 내 몸뚱입니까, 어디? 그 중생들의 집합소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크다면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고 작다면 좁쌀, 아니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 먼지 한 알갱이에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거기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네들더러 뭘 잔뜩 차려 놓고 지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조상들이 들어와서 뭘 봅니까? 돈 얼마 들여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디 천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공부를 한다면, 조상들이 와서 그 마음속에 척 들어가 보니까 '아, 우주 삼라만상이 툭 터졌어!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들어갈 문, 나올 문도 없어. 그리고 자유스러워.' 아,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거지 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시식을 지내 달라고, 천도를 해 달라고 가져온 돈을 가지고 나가서, 애들하고 거리에 나앉아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줘 버리고 설렁설렁 그냥 오시니까 아, 천도 안 시켜 준다고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그래서 "천도 안 시켰다고 생각하걸랑 이 돈 도로 가져가라." 했다는 얘기가 있죠. 나도 그런 일 잘했으니까요.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 천지를 한생각에, 한 찰나에 돌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를 해 놓고 천도를 시켜도 이 세상 만물만생, 죽은 세상 산 세상 다 먹고도, 일체제불이 다 받고도 그 떡 하나는 되남아요.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얼마나 광대무변한 법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천오백 몇 년 전, 그때에 가신 게 아닙니다. 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하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부처의 씨앗입니다. 그 부처님의 씨앗이에요. 종자예요! 그 부처님의 종자하고 여러분의 종자하고 다른 겁니까? 깨씨 하나를 심어서 깨씨를 받아 놓았으니까 그 무수한 깨씨가 다 똑같아요. 깨씨예요, 그냥! 허허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고 또 창조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생활하는 것이 심성과학이며 심성의학입니다. 그러니 60% 모자라는 거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채워서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세요!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집을 남더러 고쳐 달래요? 그리고 고칠 때도 정 어디가 부러져서 남의 손이 필요할 때는 이거 좀 이어 달라고 해야죠. 일꾼을 불러다가 하듯이 의사, 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지만, 내 집이 안으로 곪아 터지고 안으로 잘못되는 거는 주인이 고쳐서 집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이나 본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 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싱긋이 웃고 그냥 돌아설 때가 있죠. 왜냐? 좋아서요. "아유! 스님,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내쫓긴 제가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럴 때, 또 부부지간에 아주 헤어질 단계까지 갔었는데 "우린 지금 정답게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할 때, 또 여러 얘기들이 아주 많죠.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냐. 당신의 전깃줄하고 내 전깃줄하고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죠. 어때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생활 속에

☞18면으로 계속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마음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17면에서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생활 속의 문제들도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먹는 대로 해결이 될 수 있건만 모두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에 얽히고설켜 가지고 한 치도 그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가 없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쪽을 나무라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마음을 너그럽게 낼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세요.

바로 내 주인공 뿌리에 함께 하고 있으니 그 남편의 뿌리, 자식의 뿌리 모두가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력이 전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그 전력을 끌어 쓸 뿐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렇게 끌어 쓰십시오. 전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난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좀 착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참, 공덕이 있게 할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아주 일등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신계를 길러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저는 제주지원 법형제회에 나가는 신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를 보고 사이비니 이단이니 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려는 스님의 설법을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정의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지금 이 세상에는 사이비로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믿으라는데 왜 사이비입니까?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스님: 내가 딴 거를 믿으라고 그러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야 사이비지 어떻게 사이비입니까, 그게? 나 참! 하하하….

질문자1(남): 잘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에 살고 있고 단군성주교 교단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오늘 팸플릿을 보니까 불기가 2538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는데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 그 2538년이라는 불기가 어느 시절에 어느 곳의 어느 부처님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충분한 대답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스님: 부처님의 불기가 어느 때고, 어느 때라는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쓰면 그냥 수박을 겉핥듯이 돌리다가 세월 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불기가 어떠니 저떠니 어느 날이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어느 때 깨달았느니 어느 때 열반하셨느니 이런 걸 묻지도 마세요. '열반이다' 또 '형성된다' 하는 것은 찰나에 형성되고 찰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냄으로써 그냥 일을 연구해서 잘 내놓기도 하고 또 성취시키기도 하는 것이 발전이며 그것이 바로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 무슨 경전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날짜를 따지지 말고 영원히 그냥 계시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합니다. 4월 8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일분일초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저 찰나찰나 부처님 법이 있고 또 찰나찰나 부처님이 오시고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들 사는 것이 즉 부처님 법이에요.

> 말없이
> 행으로서
> 자비를 베푸는 것이
> 진정
> 사랑 아닌 사랑

그러니 그런 거를 자꾸 따지고 이런다면 이론에 불과해서 진짜 생활로서의 진짜 실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실천해 가는 그 멋이야말로 참,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자3(여): 스님 법문 중에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여러 신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여쭙겠습니다. 일반 불교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음선원에 와 보니까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 본마음자리에 관해라' 그러셨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오신 많은 불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저부터도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 말을 또 해 달라고요? 하하하…. 이거 아닙니까?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하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업식들이 뭉쳐서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내가 형성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산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데다가…, 그냥 화가 나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복해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뭐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감사하구나!' 하고 놓고 또 행복하지 못하면 '아니, 행복하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마음을 돌려서 거기다가 되놓는 게 관하는 겁니다. 이게 되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요. 실행이 돼 나가는 반면에 우리가 주고받는 사이 없이 주고받게 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게 되고, 찰나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스님, 이러이러합니다." 이러고 전화가 옵니다. 즉 말하자면 어렵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쉽겠지만, 아주 한 푼도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혈을 막 하고 콧구멍에서도 피가 나오고 그냥 입에서도 나오고 이런다고 합시다. 자식들을 조랑조랑 두고서 돈 한 푼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뭐 여러 말이 필요합니까? "알았어!" 그러면 되지. 허허허….

근데 '알았다'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알았다고 하는 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떠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았다 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극할 테죠.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이구! 주인공, 나좀, 나를 낫게 해 주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그냥 막 이럴 때 이쪽에서도 지극한 그 마음이 탁 가서 한데 합쳐지니까 불이 번쩍 들어오죠. 그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국인데도 그렇게 가깝고요, 또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 한 치도 그렇게 멀어요. 한 치인데도, 이 문지방 바깥인데도 마음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질문자3(여):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후인데, 딴 절에 열심히 가시는 분에게 "불교 사찰에 열심히 나가면서도 식구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점을 보러 가십니까?" 하니까 "아! 그때는 당연히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아서 여쭙니다. 일월이라고 그러던데요, 처음에는 '그게 뭘까?' 했는데 조상 중에 혹시 높은 벼슬을 했거나 아니면 책을, 무슨 철학을 봤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일월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을 못해서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허허허…, 그런데요, 낮고 높고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점을 봐 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게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로 차원이 낮고 높고 이렇게 모두 생활들을 하고 계시듯이, 물건도 차원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듯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양반들도 안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 내 마음이
> 발전하지 못한다면
> 한 치도
> 자유스럽게
> 살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도 물질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신계로 들어야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흉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저 내가 '저 사람도 저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을 관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볼 게 하나도 없죠. 전자에 내가 모를 때 그렇게 했던 내 모습으로 본다면 아주 좋죠. 모두가 남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 모습으로 보면서 잘못한다 잘한다 그렇게 흉볼 것도 없이 잘해 나가야 되겠죠.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면 진짜 부처님의 법을 따라야 하죠.

여러분! 제주도에 와 보니 이 공부를 한 번도 접해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만이 이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나눠 줄 게 있는데, 그거를 받아 가지고 가서 보면서 우리가 자꾸자꾸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해야 하고,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이 의식들도 개혁하고 개선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발전을 못한다면 한 치도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 부처님 형상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형상으로 보이겠지만 진짜 부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도 내 몸, 내 형상,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니 공부할 때는 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다 해 놓으면 진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부처님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체 만물, 돌 하나라도 모두 스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체 만물에게 정법으로써 법을 설해 주어야…, 여기 앉아서 듣는 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도되신 분들도 지금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처님을 모셔서 점안식을 하고 모셔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앉아 있어도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천리만리를 오고 가면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접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는 그런 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이 모두 과거에 살던 나부터 잡고 들어가야 바로 문 없는 문을 접하게 되고 그놈을 붙들어야만이 죽은 세상을 다 알게 되는 거니까요. 죽은 세상을 다 알아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 세상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모두.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려면 정말 반찬 가게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내면의 자기 뿌리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 너만이, 네 몸뚱이니까 네 시자니까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고칠 수 있어. 고쳐서 끌고 다녀야 하잖아!' 하고 일체를 일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즉 말하자면 용두의 법왕이 되고 또는 평등공법의 문 없는 문을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이 세상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죠?

※위 법문은 1994년 5월 29일 제주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식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초심자나, 정확한 의식이 필요한 전문가 모두, 다른 페이지를 찾지 않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新刊 通用佛教·齋禮儀範 案內

○ 불교의범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송주편	제 2장 예경편	제 3장 전각예경편
제 4장 불공편	제 5장 모든법회	제 6장 방생
제 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제 8장 점안편	제 9장 이운편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 재례의범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 1장 시식편	제2장 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婚篇		



불서총판 책나라 02)739-7451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발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빠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타킹(0.2평의 기적출연 SBS 불만제로(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기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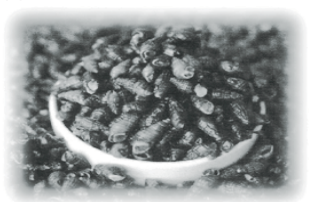
특별판매가 : 2만원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6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만물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길을 묻는 이에게

오신 것도 가신 것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처님!

(지난호에 이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건지고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면서 말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지만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나 자체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공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그러고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아들이 되고 "여보!" 그러면 남편이 되고, 금방금방 달라지죠? 어때요? 그렇게 자꾸자꾸 화해서 바로 바뀌지는데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까요,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까요? 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가지고 고정됨이 없으니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공했죠.

그러니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공한 도리니 거기에 착을 붙이지 말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놓고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 거를 그냥 아둥바둥 아둥바둥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해서 살아요. 남편이 승진을 해야 한다면 그냥 바깥으로 온통 쏘다니면서 야단법석들을 하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상생활의 일체가 다 그래요. 내 원자한테다가 맡겨 놓으면 원자가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화해서 다 다니면서 마음 조절도 하고 안되는 거 되게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편리한데 말입니다. 심성과학이라는 게 지금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심성과학을 쓰지 못하고 그냥 과학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하하하….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하다' 말할 수가 없으리만큼 이 세상 만물만생이 전부 감사해요.

자비가 뭔 줄 아십니까? 자비는 사람들을, 서로를 모두 편안하게 해 주면서 서로 고통을 면하게 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면케 해 주면 스스로 편안해지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얄팍하게 입술에 붙여 가지고 사랑 사랑 하는데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못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변덕쟁이를 사랑이라고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러고도 고질병이 들거나 병을 길게 앓는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선….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입가에 붙이고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다. 결국은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닌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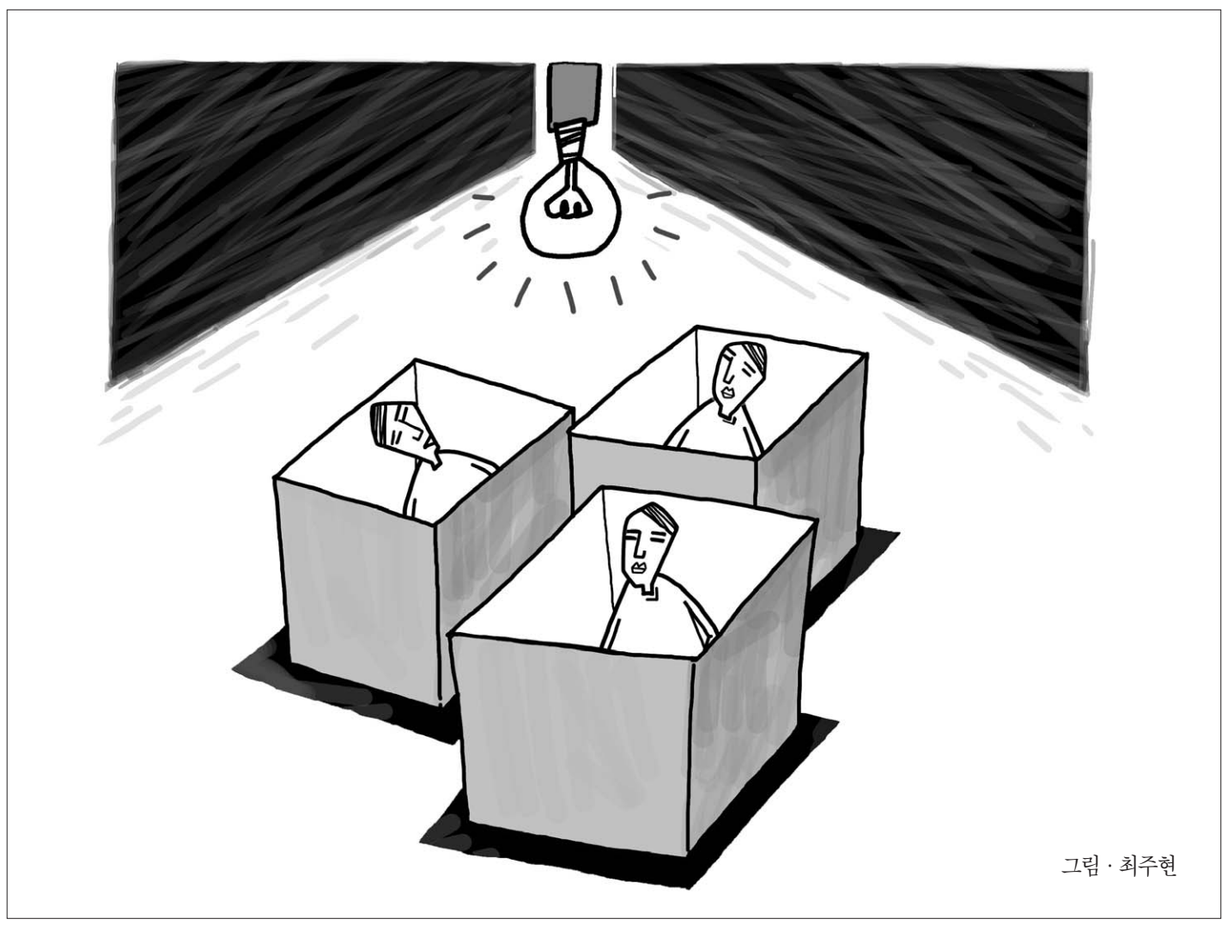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처가 있고 자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부터 알아야 일체제불의 그 마음을, 송두리째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나고 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그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죠? 여래고요. 여러분의 집이 헐어지면 누가 고치죠? 누가 고칩니까? 집 주인이 고치죠? 타인이 고쳐 주는 법 없죠? 허허허…. 그런데 여러분의 몸뚱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에요. 집과 같은 겁니다. 그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고치려면 마음으로 진정코 거기다 맡겨 놓을 때 바로 마음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게 되면 모자라는 데는 보태 가면서 서로서로의 집을 고치느라고 작용을 하죠.

그러니 몸뚱이도 내 몸뚱입니까, 어디? 그 중생들의 집합소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크다면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고 작다면 좁쌀, 아니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 먼지 한 알갱이에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거기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네들더러 뭘 잔뜩 차려 놓고 지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조상들이 들어와서 뭘 봅니까? 돈 얼마 들여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디 천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공부를 한다면, 조상들이 와서 그 마음속에 쳐 들어가 보니까 '아, 우주 삼라만상이 툭 터졌어!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문도 없고 들어갈 문, 나올 문도 없어. 그리고 자유스러워.' 아,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거지 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시식을 지내 달라고, 천도를 해 달라고 가져온 돈을 가지고 나가서, 애들하고 거리에 나앉아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줘 버리고 설렁설렁 그냥 오시니까 아, 천도 안 시켜 준다고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그래서 "천도 안 시켰다고 생각하걸랑 이 돈 도로 가져가라." 했다는 얘기가 있죠. 나도 그런 일 잘했으니까요.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은 우주 천지를 한생각에, 한 찰나에 돌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를 해 놓고 천도를 시켜도 이 세상 만물만생, 죽은 세상 산 세상 다 먹고도, 일체제불이 다 받고도 그 떡 하나는 되남아요.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얼마나 광대무변한 법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천오백 몇 년 전, 그때에 가신 게 아닙니다. 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하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부처의 씨앗입니다. 그 부처님의 씨앗이에요. 종자예요! 그 부처님의 종자하고 여러분의 종자하고 다른 겁니까? 깨씨 하나를 심어서 깨씨를 받아 놓았으니까 그 무수한 깨씨가 다 똑같아요. 깨씨예요, 그냥! 허허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고 또 창조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생활하는 것이 심성과학이며 심성의학입니다. 그러니 60% 모자라는 거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채워서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세요! 집을 고쳐 가지고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집을 남더러 고쳐 달래요? 그리고 고칠 때도 정 어디가 부러져서 남의 손이 필요할 때는 이거 좀 이어 달라고 해야죠. 일꾼을 불러다가 하듯이 의사, 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지만, 내 집이 안으로 곪아 터지고 안으로 잘못되는 거는 주인이 고쳐서 집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이나 본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해 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싱긋이 웃고 그냥 돌아설 때가 있죠. 왜냐? 좋아서요. "아유! 스님,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내쫓긴 제가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럴 때, 또 부부지간에 아주 헤어질 단계까지 갔었는데 "우린 지금 정답게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할 때, 또 여러 얘기들이 아주 많죠.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냐. 당신의 전깃줄하고 내 전깃줄하고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죠. 어때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생활 속에

☞18면으로 계속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꽃의 계절, 5월의 푸르름

푸른 5월 휴일을 맞아 부모님 묘소를 다녀왔다. 오는 길에 언제나처럼 통도사 경내의 이곳저곳 불당에 한 아름 꽃을 놓았다. 잠시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니 온통 꽃들로 둘러싸여있다. 특히 물오른 철쭉은 붉은 자태를 한껏 뽐내며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하게 드러낸다.

5월은 뭐니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더욱 즐겁다. 그밖에도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온통 배려의 따뜻함과 기쁨을 나누는 날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5월의 모든 꽃들을 가슴에 가득 달아준다.

꽃만큼 우리의 일상 깊숙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식물도 드물 것이다. 때로는 축하와 감사를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격려와 위로의 애통함을 전달하는 감정의 전령사가 되어주곤 하기 때문이다.

한편, 꽃은 오랜 역사로 우리의 심성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남궁억의 '무궁화동산'에는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으로 노래한다. 무궁화는 아득한 고조선 단군시대로부터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겨레의 혼으로 내려왔다. 태고 단군조선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나라꽃으로 등장해 신라, 고려 때의 '근화'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구한말 다시 나라꽃이 된다.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동거동락하며 지금의 국가상징이 되었다. 길고긴 초여름부터 100여일을 꼭두새벽부터 피어서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게 꽃피우는 무궁화야말로 꽃 중의 꽃이다.

일제 강점시기에는 민족의 상징이자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가슴 속에 피는 희망의 꽃으로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꽃은 나라이기도 하다.

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모란은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측천무후의 질투에 얽힌 설화 때문에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의미하는 전설의 꽃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엉겅퀴는 잠입하는 덴마크 바이킹들이 그 가시에 찔려 지르는 비명을 듣고 대피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설화를 지닌 호국의 꽃이다.

호주의 와틀은 18세기말 초기 원주민들이 벽화 등을 그릴 때 즐겨 쓰던 식물로 정착민들이 주택, 가구 등 일상의 모든 것의 재료로 사용한 삶 자체였고, 우아한 노란 색조의 향기로 인해 온 국민이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었다.

꽃은 우리 문학작품의 시로 삶 속에 녹아 있기도 하다. 김춘수의 '꽃'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김영랑의 '모란'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얘기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율분어린 민족의 정서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의지로 승화해 내고 있으며,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모진 고초를 견뎌낸 누님 같은 완숙함을 국화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꽃은 아름다움과 함께 향기가 있어 더욱 매혹적이다. 그런 꽃들이 점차 향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게 한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호세 푸엔테스 환경과학과 교수는 문명의 산물인 대기오염으로 인해 1km를 넘나드는 꽃향기가 200~300m에 머물러 꽃의 꿀을 찾지 못하는 벌들이 대규모 폐사하는 일들이 잦다고 한다. 벌이 없어지면 결국 꽃들도 생식을 못해 사라지고 만다. 꽃 없는 산천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제 꽃은 환경이며 우리의 미래다.

"거사님이 내내 마음으로 울고 계시던데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3 삶과 죽음의 갈림길

혼자 살아남다

"제가 미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김씨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오싹하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장이었다. 그 날도 아내와 아들과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아내가 앉고 그 바로 뒷자리에 아들이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김씨의 차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곧 정면충돌할 것이 명백했다! 눈앞이 아찔했다. 불과 몇 초 정도 되는 찰나에 김씨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무조건 피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왼쪽으로 있는 힘껏 확 돌려버렸다. 그래서 트럭은 김씨 차의 오른쪽과 정면충돌해 버린 것이다. 김씨는 심한 충격으로 기절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야 아내와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나마 너는 살아서 다행이지. 트럭이 자동차 오른쪽으로 부딪친 거야."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충돌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운전대를 확 돌린 기억이 났다. 왜 왼쪽으로 꺾었을까.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내와 아들을 정면으로 부딪치게 만든 셈이다. 만일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었다면 하고 가정해보았다. 그럼 왼쪽에 앉아있던 자신은 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위험한 순간에 아내와 아들보다 나 자신의 목숨과 안전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 결국 아내와 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때부터 김씨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인을 한 것만 같았다.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괴롭혔다.

부모님의 눈물

당시 사십대 중반이었던 김씨는 앞으로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나마 죗값을 치루는 일 같았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다. "너 힘든 줄은 알지만 이제 재혼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닌가. 외아들인 김씨가 자손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았으니 꼭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꿈에도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넌 집안의 대를 끊는 불효를 할 거냐. 내가 며느리 손자 잃고 이제 죽어도 눈을 못 감게 되었다. 애비를 이대로 죽일 작정이냐" 하며 펄펄 뛰었다. 하는 수 없이 만나보기만 하기로 했다.

상대 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는 아예 이야기해버렸다.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의 오른쪽 가슴에는 아내가 묻어있고 왼쪽 가슴에는 아들녀석이 묻어있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 날 저녁 난리가 났다. 소개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이다. 김씨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왜 나왔느냐고 화를 낸 것이다. 아버지는 김씨를 불러서 칼을 앞에 놓았다. "이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함께 죽든지 아니면 내 눈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너 같은 아들을 두어 무엇하냐." 김씨는 용서를 빌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너무 완강했다.

업을 녹이는 길

그 길로 집을 나왔다. 살기가 싫었다. 기차를 타고 먼 지방으로 가서 산으로 들어갔다. 가다보니 절이 나왔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일해 드릴테니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산에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다음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집이라는 것이었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일하며 듣는 경 소리가 너무나 슬프게 들렸다.

저녁에 스님이 불렀다. "거사님, 무슨 일 있으시지요." "왜 물으세요, 스님. 일은요." "아까 다른 집 제사인데 거사님이 내내 마음으로 울고 계시던데요."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에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참고 참던 슬픔이 터져 나와 자기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사연을 들은 스님은 인연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돌아간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날부터 김씨는 불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살하는 것은 먼저 간 아내와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업도 녹이고 가족들의 업도 녹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부지런히 정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꿈에 아내와 아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십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딴사람이 되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부처님법을 알려고 했을까 싶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지요."

김씨의 얼굴에 사고의 흉터 위로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미얀마에 자비를 보내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국가인 미얀마가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초토화가 됐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수많은 스님들이 거리로 나섰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군정(軍政)이 정국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을 잠재우는 불안정한 상황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의 국내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피해 현장에 당도하는데 이중 삼중의 걸림돌이 있다는 외신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한국의 불교계는 미얀마의 엄청난 재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이즈음에 한국의 불자들은 봉축의 환희에만 젖어 있지 않고 재난을 당한 미얀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조계종이 애도문을 발표하고 긴급성금을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또 지구촌 공생회와 로터스 월드, 불교 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의 모금운동도 빛나는 보살행이 아닐 수 없다.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개인의 복락과 특정 국가와 인종의 행복을 위한 잔치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주 공간의 일체만물이 함께 성불하기를 염원하며 일체제불이 일체중생의 다른 이름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은 이웃과 나를 둘이 아니게 여기는 실천행의 뼈대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으로 아프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난타의 등'을 밝히는 심정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해야 '참불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스피스 교육 활성화 돼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피할 사람은 없다. 불교는 죽음을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은 연기적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육신의 영원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이치를 밝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큰 지혜를 얻은 분이다. 많은 선사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닐었다. 죽음을 맞아 얼마나 평온한가에 따라 공부의 크기를 가늠하기도 했다. 실제 좌탈과 입망으로 죽음을 연출하며 무언의 법문을 남긴 선사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불교의 죽음관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도 불교의 독특한 신념이다.

그런데 최근 임종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는 달리 불교계의 호스피스 교육 현장은 매우 썰렁하다고 한다. 교육 시설도 없거니와 그나마 있는 시설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불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홍보와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없진 않지만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홍보와 이해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포교기반이 약한 현실에서 복지활동의 현장은 매우 중요한 포교의 거점이 된다. 반드시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복지 현장은 세대와 계층을 떠나 중요한 인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늦었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다. 임종간호는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포교 종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님들이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어린 왕자
나이를 따져봐라, 품위도 생각해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새 차를 장만할 법도 하지만, 정 들어 당신의 두손 두발 같다며 10년된 차를 앞으로 10년은 더 탈 거라고 애지중지 아끼시는 49세 박찬익 교수
차에 대한 그 열정 오래오래 변치 마시라고 모비스는 부품공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Inside your car
HYUNDAI MOBIS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박찬익교수는 10년째 티뷰론을 타고 계십니다